##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 4, 5번

헤닝 크라게루드(바이올린), 노르웨지언 첨버오케스트라

**정교한 짜임새, 경쾌하고 짜릿한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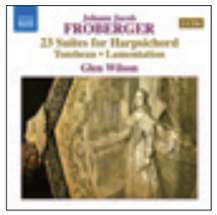
시벨리우스, 신딩, 이자이의 굵직한 작품들에서 부터
노르웨이 작곡가들의 소품에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에 이르기까지
고루 뛰어난 연주를 보여준 헤닝 크래거루드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의 카덴차를 작곡하기도 했던 그는
본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5번 모두
자신의 카덴차를 사용해 연주하고 있다. 전작들의 정교한 짜임새는
본 음반에서도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경쾌한 분위기와 공명,
바이올린의 짜릿한 질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의 몰입을 선사한다.

8.573513

#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 콘서트 환상곡**
엘다 네볼신(피아노), 뉴질랜드 심포니오케스트라, 마이클 스턴(지휘)
화려한 기교 & 자유분방하고 호쾌한 연주
8.573462




**프로베르거: 하프시코드를 위한 23개의 모음곡**
길렌 윌슨(하프시코드)
연대순으로 편집한 프로베르거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8.573493–94

**스탠포드: 합창음악**
바흐 콰이어(합창),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힐(지휘) 외
스탠포드 작품의 본령, 합창음악
8.573512

**뱅상 댕디: 교향곡 2번 & 추억 & 이시타르 외**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장–뤽 탱고(지휘)
음반 한장으로 조망하는 뱅상 댕디의 작품 세계
8.573522

**스트라빈스키: 병사들의 이야기(1920년 버전) & 관악 8중주(1952년 개정판) & 결혼(1923년 버전)**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첨버 플레이어즈, 조앤 팔레타(지휘)
스트라빈스키 음악 인생의 분기점 위에서 탄생한 작품들
8.573538

**조르쥬 온슬로: 현악 5중주 1집**
엘란 5중주단
도메니코 드라고네티의 인상이 반영된 현악5중주 작품
8.573600

**슈포어: 교향곡 2번&9번(사계)**
코시체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슈포어판 '런던 교향곡' & 원숙기의 걸작
8.555540

**에르킨: 교향곡 2번, 바이올린 협주곡 외**
제임스 버스웰(바이올린), 이스탄불 국립 교향악단, 테오도레 쿠차르(피아노)
터키 현대음악의 대가가 쓴 역동적이고 화려한 관현악 작품들
8.572831

**존 필드: 피아노 협주곡 7번 & 아이리시 협주곡 외**
벤자민 프리스(피아노), 노던 신포니아, 데이비드 하슬람(지휘) 외
존 필드 특유의 맑은 서정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8.573262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2집**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피아노 작품 만큼이나 폭넓고 다채로운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두번째 음반
8.573264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 배포 및 제품 판매처 ]**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8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8호 | October 2016

*Key Issue

RCO Live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실황

포크 가수 〈인디언 수니〉 네 번째 음반

*Cover Story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걸작오페라 7차분

## Key Issue


RCO Live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실황 ..... 3
포크가수 〈인디언 수니〉 네 번째 음반 ..... 33
세계 최고의 '팬텀' 존 오웬-존스 내한기념 한정반 ..... 67


## Cover Story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걸작오페라 7차분 ..... 4-5


## CD


Austrian Gramophone ..... 6
Capriccio ..... 6-8
Delphian ..... 9-10
Dynamic ..... 10
Farao ..... 11
Gramola ..... 11-12
Grand Piano ..... 13-14
ICA Classics ..... 14-15
MD&G ..... 15
Naxos ..... 16-22
Ondine ..... 22
OpusArte ..... 23
Orchid ..... 23-24
Orlando ..... 24
Proprius ..... 25
RCO Live ..... 25
RPO ..... 26
Seattle Symphony Media ..... 27
Simax Classics ..... 28
Solo Musica ..... 28
Sono Luminus ..... 29
Steinway & Sons ..... 30
Tactus ..... 31
Toccata Classics ..... 31-32
**Coming Soon (BR Klassik CD Sampler)** ..... 32


## DVD & Blu-ray


Accentus ..... 34-37
Arthaus ..... 38-39
BelAir ..... 40-45
C Major ..... 46-48
Dynamic ..... 49
EuroArts ..... 50-59
Naxos ..... 60
OpusArte ..... 61-62
RCO ..... 63
Aulos Media ..... 64-66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 새 바람을 일으킬 다니엘레 가티와 콘세르트헤바우의 진한 입맞춤 RCO Live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실황

2016/17시즌부터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의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리스트의 교향시 '오르페우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연주를 담았다. 1080p24의 해상도의 영상과 사운드는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부터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폭풍 같은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가티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하이팅크, 샤이, 얀손스의 전통을 이으며, 동시에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이다.

RCO 16109 [DVD]

RCO 16108 [Blu-ray]

RCO 16006 [SA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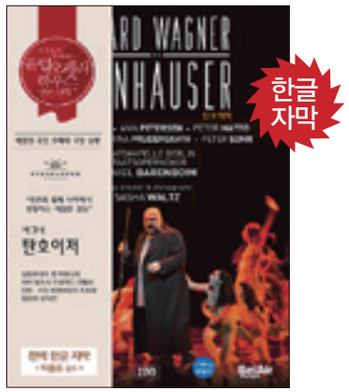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실황**
다니엘레 가티(지휘),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네덜란드의 명문인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을 이끌던 마리슨 얀손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다니엘레 가티다. 2016/17시즌부터 취임한 가티는 1994~1997년 영국 로열 오페라 수석 객원지휘자에 이어 1996~2009년 로열 필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런던'을 발판삼아 성장했고,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로 '파리'를 물들였고, 이제 '암스테르담'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6년 3월 31일과 4월 1 · 2일 실황이다.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1845년 드레스덴 버전), 리스트의 교향시 '오르페우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연주한다. 가티와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과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콘세르트헤바우를 이끌었던 하이팅크, 리카르도 샤이, 마리슨 얀손스가 남긴 음악적 전통을 이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임을 입증한다. 가티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해석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길어 올린다. 폭풍 같이 흐르는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3곡 중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다. 1악장 '꿈, 정열', 2악장 '무도회', 3악장 '들 풍경',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5악장 '마녀들의 밤의 향연과 꿈', 각 악장마다 부제가 붙은 이 곡을 가티는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문학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 모두 성공적으로 부각시킨다.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부클릿에는 '환상 교향곡'에 대한 가티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자체 레이블(RCO)에서 출간하는 영상물의 미장센 연출은 압권이다. 이를 선두 지휘하는 딕 카위스 감독의 솜씨는 무대와 관객을 구석구석 훑으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 걸작 오페라 '유럽 오페라 하우스 명연시리즈' 7차분

이 한 장의 DVD만 있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물론,
그 프로덕션의 묘미 역시도 완전히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리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작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들도 과감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오페라 팬들의
안목이 보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더불어 국내 오페라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또한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이 시리즈는 5 타이틀씩 지속적으로 추가발매되고 있다.




ADVD-069 [2DVDs]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방황하는 처절한 갈등"

## [31] 바그너: 탄호이저

-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 실험무대의 명 무용감독 사샤 발츠의 인상적인 연출과 안무
- 거장 바렌보임의 지휘와 정상의 성악진

**[줄거리]** 중세 독일의 기사 탄호이저는 베누스의 육욕적인 사랑에 매혹되어 그녀와 쾌락의 나날을 보내고 돌아온다. 고향에는 연인 엘리자베트가 변함없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들의 노래경연대회에서 탄호이저는 그만 베누스와의 경험을 실토해버린다. 그는 비난을 받고 영주는 징계를 내린다. 로마까지 순례의 길을 가서 교황의 용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누스를 경험한 자는 교황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에 절망하여 다시 돌아온 탄호이저는 자신을 맞이해줄 자는 베누스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 그녀의 희생 때문에 탄호이저는 구원을 얻는다.

ADVD-070 [DVD]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복수가 공존하는 강력한 걸작"

## [32] R.슈트라우스: 엘렉트라

-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실황
- 은퇴한 천재지휘자 살로넨의 마지막 실황
- 헤를리치우스, 마이머, 피에촌카, 최고 트리오의 열창

**[줄거리]** 고대 그리스 비극은 오페라의 중요한 소재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스파르타의 왕 아가멤논은 연인과 불륜을 저지른 왕비 클리템네스트라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공주 엘렉트라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와 그 정부를 살해하려 하지만, 처녀의 몸이라 힘이 없다. 그녀는 미친 여자로 가장하여 목숨을 부지하면서, 외국으로 간 남동생 오레스트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린다. 결국 오레스트는 극적으로 귀환하는데... 어머니와 두 딸이 보여주는 세 모녀의 애증 관계는 여성 심리의 최고봉이며, 오레스트의 손으로 저질러지는 피날레의 복수장면은 R. 슈트라우스 관현악의 백미이다.

ADVD-071 [DVD]

"러시아도, 러시아 오페라도 이끌어가는 것은 민중"

## [33] 무소륵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실황
- 섹슈얼리티와 폭력으로 화제를 일으켜온 비에이토의 새로운 무대
- 나가노의 스케일 넘치는 지휘

**[줄거리]** 1600년경 러시아. 황제가 서거하여 황가의 혈통은 끊겨버렸다. 이에 백성들은 섭정이었던 보리스 고두노프가 황제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외친다. 고두노프는 못이기는 채 황제로 즉위한다. 그러나 실은 고두노프가 왕위계승자였던 드미트리를 암살한 주범이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스스로를 드미트리라고 칭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모스크바를 향하여 쳐들어온다. 하지만 그 역시 우연히 고두노프의 비밀을 알게 된 젊은 수도승이었다. 드미트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고두노프는 두려움으로 떤다. 가짜 황제와 가짜 계승자의 권력을 향한 치열한 대결... 지도층과 인민의 탐욕과 갈등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다.

ADVD-072 [2DVDs]

"실연의 복수를 위해 아이를 죽인 어머니의 비극"

## [34] 케루비니: 메데아

- 브뤼셀 라 모네 극장 실황
- 로시니 이전 시대의 최고 거장의 걸작
- 명장 바를리코프스키의 연출과 나디아 미카엘의 명연

**[줄거리]** 코린트의 공주 글라우체는 이아손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여자 메데아가 나타난다. 메데아는 이미 이아손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었으며, 마법으로 이아손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돕기도 하였었다. 그런데도 버림받은 메데아는 이아손에게 눈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애원한다. 하지만 이아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메데아는 글라우체에게 결혼 선물로 예복을 보낸다. 글라우체는 메데아가 이아손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그 옷을 입는다. 하지만 옷으로부터 글라우체의 온몸에 독이 퍼지고 불에 타서 참혹하게 죽는다. 메데아의 분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두 아이마저 죽인다.

ADVD-073 [DVD]

"사랑을 뺏기 위한 음모, 사랑을 지키기 위한 광기"

## [35] 림스키코르사코프: 차르의 신부

-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 실황
- 러시아적 서정미의 정수를 담은 숨은 걸작
- 바렌보임의 지휘와 귀재 체르니아코프의 세련된 연출

**[줄거리]** 젊은 장교 그리고리는 상인의 딸 마르파의 미모에 반하지만, 그녀는 이미 귀족 리코프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그리고리는 의사에게 사랑의 묘약을 부탁한다. 그들의 음모를 그리고리에게 버림받은 여자 류바샤가 엿듣는다. 류바샤는 실연의 복수로서 마르파의 미모를 없애는 약을 주문한다. 이렇게 마르파는 두 남자의 구혼을 받지만, 그녀는 예상치 않게 차르(황제)의 신부로 결정된다. 차르와의 원하지 않는 결혼식 도중에 약을 먹은 마르파는 광증의 상태가 된다. 그런 그녀를 보고 앞의 복잡한 사랑의 그물에 얽힌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백한다. 그러나 마르파는 그런 고백들도 알아듣지 못한 채로 그만 죽어간다.

## Austrian Gramophone

www.austriangramophone.com

AG0004

**클라라 슈만, 샤미나데, 파라디스, 불랑제 등 여성 작곡가의 바이올린 음악**

세타레흐 나이파르-나흐비(바이올린), 테레지아 슈마허(피아노)

**여성의 독특한 감각과 감수성이 만들어낸 수준 높은 바이올린 소품들**

여성이 음악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국경을 넘어서 활동했으며, 〈세 개의 로망스〉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파라디스의 〈시실리엔느〉는 대중적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이며, 세실 샤미나데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다. 천재 작곡가 릴리 불랑제는 25세에 요절하여 많은 작품을 쓰지 못했지만, 20세기 초 중요한 프랑스 작곡가로서 탐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의 독특한 감각과 감수성이 만들어낸 수준 높은 소품이 이 음반에 가득하다.

## Capriccio

www.capriccio.at

C3005

**엠마누엘 다과노가 부르는 벨칸토 아리아**

엠마누엘 다과노(테너), 찰스 스펜서(피아노)

**벨칸토 아리아를 노래하는 점잖은 미성(美聲)**

이탈리아 출신 테너 엠마누엘 다과노는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퍼셀에서부터 바그너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브루노 캄파넬라가 지휘한 '사랑의 묘약'(네모리노)을 비롯해 주빈 메타가 지휘한 '투란도트'(풍),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아르투로)에서 활약했다. 벨칸토 아리아가 담긴 본 음반은 다과노의 솔로 데뷔 음반이다. 그 만의 점잖은 미성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로시니의 '약속'이 특히 인상적이다.

C5271

**히나스테라: 파블로 카잘스의 테마에 의한 글로세 외**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르투로 타마요(지휘)

**히나스테라 '신 표현주의 시기' 작품들의 다양한 면모를 표현하는 밀도 높은 연주**

히나스테라의 작품 세계는 아르헨티나 등의 민속 음악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 위에 현대 음악 요소들을 더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본 음반에는 히나스테라가 12음 기법 등 현대 음악의 요소들을 수용했던 '신 표현주의 시기'(371)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방가르드적 색채뿐만 아니라 현대음악과 이전 시기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까지 '신 표현주의 시기'의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파블로 카잘스의 테마에 의한 글로세'에서는 히나스테라 작품 세계의 원동력이라 할 만한 '정체성'에 대한 성찰도 엿볼 수 있어 뜻 깊다.

C5274

**프란츠 슈미트: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아 외**

야스민카 스탄출(피아노), 라인란트 팔츠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 알렉산더 룸프(지휘)

**장쾌한 스타일의 주제와 변주**

'오르간 작품'과 오페라 '노트르담'이 수록된 전작에 이어 프란츠 슈미트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시리즈 세 번째 음반에는 대편성 관현악 작품이 담겨 있다. 이중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아(7번 트랙)'은 작곡된 지 114년 만에 초연된 작품으로서 그에게 성공을 안겨준 '노트르담' 중 간주곡과 카니발 음악이 사용되었다. 같이 수록된 '후샤르(경기병) 노래에 의한 변주곡'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샤콘느' 모두 장쾌한 스타일로 발전하는 주제와 변주가 압권인 작품이다. 대곡의 면모를 유감없이 표현하는 악단의 연주가 감동을 더한다.

***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판타지아(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C5277

**쇤베르크: 피아노 편곡집**

우어스 리스카, 이어멜라 뮐케(피아노), 그라우슈마허 피아노 듀오

**편곡을 넘어 피아노적인 새로운 음악적 이미지를 창출한 거장들의 재해석**

쇤베르크는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지만, 생존 당시에는 청중에게 수용되지 못했다. 그의 작품은 자주 연주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적 연주모임'이라는 연주회를 직접 기획하기도 했는데, 큰 규모의 곡을 올리기가 어려워 실내악이나 피아노로 편곡하여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음반에는 쇤베르크의 작품을 쇤베르크 자신과 제자인 안톤 베베른, 그리고 부조니 등이 피아노로 편곡한 곡들을 수록했다. 이들 거장들은 단순한 편곡을 넘어, 피아노적인 새로운 음악적 이미지를 창출해냈다.

C5281

**루리에: 피아노 작품집**

모리츠 에른스트(피아노), 오스카 안술(낭독)

**20세기 초 격변기에 공존했던 낭만과 현대, 그리고 신고전의 모든 것**

아르투르 루리에는 글라주노프의 제자로서 러시아 낭만의 계승자였지만 1913년 음악원 졸업 후 러시아를 대표하는 미래주의 음악가가 되었다. 소련이 들어선 후에는 정권에 회의를 느끼고 1921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귀국하지 않았다. 파리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신고전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1941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화음악으로 생계를 꾸렸다. 이 음반은 루리에의 10대 때부터 파리 시절까지의 음악을 담고 있다. 20세기 초 격변기에 공존했던 전통적인 낭만과 새로운 음악, 그리고 고전의 탐색이 이 앨범에 모두 들어있다.

C5285

**글린카 : 피아노 변주곡 작품집**

톤 누 응우옛 민(피아노)

**음악의 푸시킨, 글린카의 풍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피아노 작품들**

글린카는 상트페테스부르크에서 존 필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때의 경험은 글린카의 피아노 작품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존 필드와 더불어 훔멜 역시 글린카에게 각별한 영향을 주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두 작곡가의 흔적과 더불어 글린카가 유럽 여행에서 얻은 영감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벨리니의 오페라 '카풀레티가와 몬테기가'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화려한 스타일도 느낄 수 있어 새롭다. 톤 누 응우옛 민은 담담한 듯 영민한 터치로 '악기의 벨칸토'라고 할 만한 글린카의 감수성을 표현했다.

C8001
**헨리 퍼셀: 오페라 모음곡**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네빌 마리너(지휘)

**고아하고 품격있는 해석 – 21년 만의 리마스터링 재발매**
과거의 명반을 리마스터링하고 있는 '앙코르'시리즈 중 단연 주목되는 음반이다. 21년 만에 재발매되는 본 음반에는 종교 음악과 더불어 헨리 퍼셀의 작품 세계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극장 음악, 그중에서도 '요정의 여왕', '킹 아서' 등 세미 오페라에서 발췌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품위와 위트, 생기 있고 화려한 색채를 갖추고 있는 퍼셀의 극장 음악은 '브리튼의 오르페우스'라 불렸던 그의 위상을 부담없이 느끼기에 적절한 작품이다. 네빌 마리너와 악단의 고아하고 품격 있는 연주까지 더해졌다면, 한번쯤 감상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C8002
**피츠윌리엄 버지널 북(발췌)**
톤 쿠프만(하프시코드)

**연주자 톤 쿠프만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음반**
버지널은 15–17세기에 사용되었던 소형 건반악기의 하나로서 당시 영국에서는 건반악기를 아우르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크게 유행했다. '피츠윌리엄 북'에는 1562–1612년 영국에서 작곡된 건반악기 작품이 정리되어 있는데, 존 불, 윌리엄 버드, 다울랜드 등에서부터 무명 작곡가에 이르는 작품이 망라되어 있다. '피츠윌리엄 북'에서 발췌한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1989년 발매된 음반(C10211)을 리마스터링해 재발매 되었다. 지휘자 이전에 레온하르트의 제자였던 연주자 톤 쿠프만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명반이다.

C8003
**미카엘 하이든: 세레나데 D장조(P.87)**
비르투오지 작소니에, 루트비히 귀틀러(지휘)

**잘츠부르크 대학 졸업 음악, 고상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마카엘 하이든의 위트**
미카엘 하이든의 두 번째 세레나데인 '세레나데 D장조'는 그가 잘츠부르크 궁정에 봉직한지 4년 후에 작곡되었다. 당시 세레나데는 대학교 졸업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세레나데 D장조' 역시 잘츠부르크 대학 졸업음악을 위한 작품으로써 궁정 내에서 미카엘 하이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9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의 마지막 악장 첫 부분에서는 연주자들이 '안녕(addio)'이라고 외치는데, 고상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미카엘 하이든의 위트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2007년 발매된 음반(C71116)을 리마스터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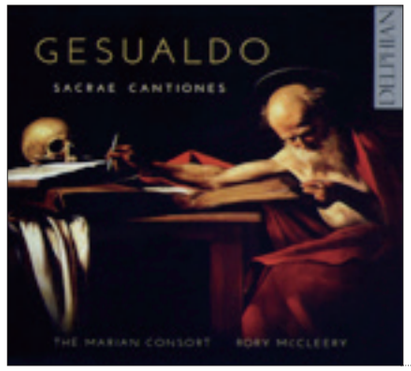
C8004
**브람스: 현악오중주 2번 &**
**쇤베르크: 정화된 밤(현악오케스트라 버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아카데미카 카메라타, 산도르 베그(지휘)

**브람스와 쇤베르크의 접점을 느낄 수 있는 음반**
전통을 중시했던 브람스와 새로운 양식을 창안한 쇤베르크는 언뜻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쇤베르크는 '진보주의자' 브람스의 면모를 역설했으며, 그 자신 역시 브람스의 영향 위에서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브람스와 쇤베르크의 작품은 두 사람 사이의 이 같은 접점을 보여주고 있다. 격조 있고 과감한 산도르 베그의 해석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와 스타일은 더욱 명쾌하게 다가온다. 과거의 명반을 리마스터링하고 있는 '앙코르'시리즈 중 하나로 10년 만에 리마스터링 되어 재발매 되었다.

C8005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6번 〈비창〉 & 1812년 서곡**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네빌 마리너(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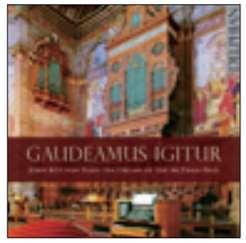
**정연함과 깊이, 스케일이 두루 조화를 이룬 명연**
차이코프스키는 〈비창〉에 대해 '본인의 작품 중 가장 진지한 작품'이라 했다. 삶의 마지막 자락을 걷고 있었던 시기에 작곡된 '비창'은 일생의 영감이 집약된 비망록이 아니었을까 싶다. 북받치는 슬픔의 그늘과 이따금 스치는 미소는 작품의 해석에 다양한 여지를 주고 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는 작품의 어둡고 장중한 분위기는 물론 감정의 기복을 정연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트랙에 수록된 '1812년 서곡'은 '비창'의 침울한 분위기를 반전하듯 무더위를 이길 만큼 호쾌하다.

##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76 ***추천음반***
**제수알도: 성가곡집**
마리안 콘소트, 로리 맥클레리(지휘)

**제수알도의 종교적 명상**
성과 속의 극단을 넘나드는 제수알도의 작품 세계는 그의 일생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제수알도 탄생 450주년을 기념해 마리아 콘소트와 로리 맥클레리는 제수알도의 '성가곡집'을 선택했다. 1603년 나폴리에서 출판된 제수알도의 '성가곡집'은 전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5성부를 위한 작품이, 2권에는 6 · 7성부를 위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2권의 모테트 중 일부는 스트라빈스키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나머지 작품들은 유실된 채 남아있다. 삶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뛰어넘은 듯 느껴지는 제수알도의 종교적 명상은 한없이 평온하기만 하다.




DCD34163
**17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오르간 음악**
존 키친(에딘버러 대학 오르간)

**흔히 들을 수 없는 귀중한 프로그램으로 오르간 음악의 역사를 꿰뚫다**
오르가니스트 존 키친은 에딘버러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에딘버러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반은 에딘버러 대학 오르간으로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작품을 폭넓게 수록했다. 독일 대학생의 노래로 유명한 〈가우데아무스 이기투르〉를 시작으로, 퍼셀의 오페라 〈아더왕〉과 〈인디언 퀸〉의 트럼펫 선율, 캉프라의 오페라 〈이도메네〉 중 리고동, 헨델의 〈성 체칠리아 축일〉 중 서곡과 행진곡, 비도르의 〈교향곡 3번〉 중 행진곡, 2014년 작품 맥도웰의 〈셀러브레이션〉까지 흔히 들을 수 없는 귀중한 프로그램이다.

DCD34170
**슈베르트의 가곡들: 방랑자**
로더릭 윌리엄스(바리톤), 이에인 번사이드(피아노)

**여인의 사랑에 이은 슈베르트 가곡의 두 번째 키워드, 방랑**
슈베르트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방랑자'가 아닐까 싶다. 소프라노 일리시 티넌과 함께 사랑에 빠진 여인을 주제로 슈베르트의 가곡의 새로운 매력을 이끌어낸 전작에 이어 피아니스트 이에인 번사이드는 2016년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상의 주인공, 바리톤 로더릭 윌리엄스와 함께 슈베르트 가곡의 방랑을 노래했다. 지나치게 격정적이지도 무미건조하지도 않은 해석, 전작을 능가하는 연주자들의 호흡은 작품의 다양한 색채를 음미할 수 있는 여운을 선사한다. '음유시인'의 감흥! 1집에 이어 놓칠 수 없는 음반이다.

DCD34181
**빙하와 롱보트(스칸디나비아의 고대 음악)**
아케 & 옌스 에게바드, 앙상블 마레 발티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 중세시대 음악**
음반의 제목인 '빙하와 롱보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음반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 중세시대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중세는 유럽대륙보다 약 600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는데, 이는 빙하가 뒤덮여 있기 때문이었다. 고고학적 성과에 근거해 복원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 & 중세 초기 악기와 이 악기들을 이용해 재구성된 음악은 영화 또는 책으로만 보았던 바이킹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자연의 음향'에 함축된 무궁무진한 매력이 경이롭다.

DCD34164 ***추천음반***

**스트라빈스키: 〈미사〉, 〈칸타타〉 등 합창곡집**

에든버러 성 마리아 성당 합창단, 스코틀랜드 챔버 오케스트라, 던칸 퍼거슨(지휘)

**소년소녀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연주**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정교회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성가를 다수 남겼다. 이 곡들은 음의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기악의 불협화적인 화음 반주로 독특한 아우라를 갖고 있다. 대표작인 〈미사〉와 〈칸타타〉가 모두 이 음반에 수록되어있다. 이와 함께 〈아베 마리아〉, 〈우리 아버지〉, 〈크레도〉 등 짧은 성가들과 스트라빈스키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제수알도의 작품을 완성한 〈세 개의 성가〉도 수록되었다. 영국 에든버러를 대표하는 성 마리아 성당 합창단은 소프라노와 알토를 소년소녀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DCD34183

**용의 목소리(고대 유럽의 켈틱 호른)**

존 케니

**아방가르드적인 색채를 뽑내는 고대 유럽의 켈틱 호른**

고대 유럽의 켈트 문화권에서는 동물 모양으로 장식된 거대한 나팔을 연주했다. 카르닉스(Carnyx)를 비롯한 나팔은 전쟁과 사냥에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용 되었는데,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된 '벨'부분(앨범 자켓)을 통해 울려 퍼지는 소리는 과연 '용의 목소리'를 연상시킬 만큼 웅장하다. 음반에 사용된 악기들은 각각 스코틀랜드, 남프랑스,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켈틱 호른을 복원한 것이다. 뉴욕타임즈가 지적했듯 '아방가르드 재즈'를 연상시키는 악기의 매력은 모든 음악의 집약체인 듯한 오묘한 인상을 남긴다.

## Dynamic www.dynamic.it

CDS 7708

**야나체크: 현악사중주 1, 2번, '잡초가 무성한 길에서'**

에네르기 노베 사중주단

**최초의 베렌라이터의 신버전 녹음, 최초의 '잡초가 무성한 길에서' 편곡 녹음**

레오시 야나체크의 현악사중주곡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작품에 붙어있는 '크로이처 소나타'와 '은밀한 편지'라는 독특한 제목도 흥미를 끈다. '에네르기 노베' 사중주단은 이 두 곡을 녹음하면서 최초로 베렌라이터의 신버전을 선택했다. 이 버전은 모라비아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쿠들라체크의 수정 부분을 제거하고 야나체크의 초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사중주 2번에서 기교적인 비올라 파트가 더욱 눈에 띈다. 피아노곡 〈잡초가 무성한 길에서〉의 사중주 편곡도 수록되었다.

CDS 7762

**C.P.E. 바흐: '케너와 립하버를 위하여' 소나타 1~4번, 론도 1~2번 등**

지오바니 토니(하프시코드)

**다양한 정서와 연주 기법들이 반영된 초기 고전 건반음악의 걸작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는 J.S. 바흐의 둘째 아들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에 고용되어 '왕의 반주자'로 활동하는 등 큰 명성을 누렸다.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건반음악은 그 중심을 차지하며,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고전음악의 모범으로 칭송되었다. 지오바니 토니가 탄젠트 스타일의 하프시코드로 연주한 이 음반은 '케너와 립하버를 위하여'라고 적혀있던 악보집에서 선택한 네 개의 소나타와 두 개의 론도, 그리고 환상곡 2번을 수록했다. 다양한 정서와 연주 기법들이 반영된 건반을 위한 초기 고전의 걸작들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 Farao www.farao-classics.de

B108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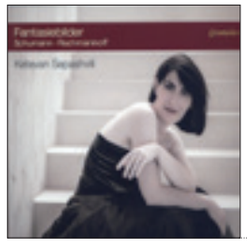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켄트 나가노(지휘)

**14세의 거침없는 젊음과 알프스의 위용을 동시에 그린 명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알프스를 매우 좋아했지만 몸이 약해서 등정을 거의 하지 못했다. 열네 살 때에 길을 잃고 폭풍도 만나는 등 고생하면서 알프스를 등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51세가 되어 그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알프스 교향곡〉을 작곡했다.
해가 뜰 때부터 정상에 이른 후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의 여정을 악장 구분 없이 22개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여,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교향시에 가깝다. 나가노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는 음색의 아름다운 배합과 중후한 음향으로 14세의 거침없는 젊음과 알프스의 위용을 동시에 그려낸다.

## Gramola www.gramola.at



99039

**슈만: 크라이슬러리아나/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Op. 39**

케테반 세파쉬빌리(피아노)

**"피아니스트의 하늘에 새롭게 빛나는 별" (취리히 오벌랜더)**

케테반 세파쉬빌리는 그루지야 출신의 피아니스트로, 현재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의 일간지인 '취리히 오벌랜더'는 "피아니스트의 하늘에 새롭게 빛나는 별"이라고 절찬하는 등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강력한 다이나믹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까지 폭넓은 표현력을 보여준다. 슈만의 〈크라이슬러리아나〉는 여덟 성격 소곡들이 갖는 각자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영롱한 음색으로 치장한다. 라흐마니노프의 〈연습곡, Op. 39〉 또한 풍부한 음향과 무리 없는 진행으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한다.

99095

**칼레바로**

**– 아메리카 전주곡, 크로노미아스 1번, 밀롱가 모음곡 1번, 연습곡 등**

야네스 그레고리치(기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루과이의 기타 거장 아벨 칼레바로**

남미 음악의 중심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우루과이, 이곳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장 아벨 칼레바로가 있다. 2016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제자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그레고리치가 칼레바로를 기리는 앨범을 내놓았다. 칼바레로의 음악은 남미의 독특한 춤곡 리듬과 특유의 멜랑콜리한 멜로디를 갖고 있으며, 풍부하고 세련된 화음으로 마음으로 전해오는 감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환상적인 기타 사운드이다. 남미의 색채와 유럽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그레고리치의 자작곡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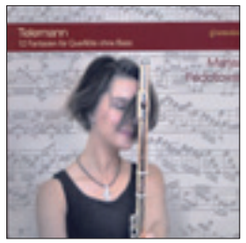
99108

**코른골트: 바이올린 협주곡, '헛소동' 중 네 곡/코뉴스: 바이올린 협주곡, 엘레지**

토마스 알베르투스 이른베르거(바이올린),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론 살로몬(지휘)

**20세기 초 낭만의 끝자락을 장식한 위대한 두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기교, 감상적인 아름다움과 다이나믹한 전개가 고루 갖춰진 걸작이다. 여기에는 헐리우드 영화작곡가의 대중적 감각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럽에 대한 향수가 어우러져있다. 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트 중 한 사람인 이른베르거는 고전음악에서 대중적 감성을 이끌어내는데 주목하여 유연하고 활력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코뉴스는 20세기 초 러시아의 비르투오조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낭만의 마지막을 지킨 작곡가로, 아름다운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로 기억되고 있다.




99114

**텔레만: 12개의 플루트 환상곡**

마리아 페도토바(플루트)

**민첩한 움직임과 깔끔한 음색으로 들려주는 투명한 천상의 음악**

마리아 페도토바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솔로 플루티스트이며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현대악기와 시대악기를 모두 연주하는 등 학구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연주자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텔레만의 〈12개의 플루트 환상곡〉은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플루트 문헌으로, 오늘날에도 매우 자주 연주되고 있다. 페도토바는 서로 다른 조성과 스타일을 갖는 열 두 곡을 민첩한 움직임과 깔끔한 음색으로 연주하여 밝고 투명한 천상의 음악으로 들려준다.

99116

**인류 최후의 날들: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의 노래들**

손거 싼토(바리톤), 카린 바그너(피아노), 프란츠 슈(낭독)

**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오스트리아의 모습을 담은 음악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00년이 넘은 시점에서 1차 세계대전 초기 당시 빈 체제의 중심이자 동맹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사회 분위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음반이 출시되었다. 레하르, 로베르트 슈톨츠 등의 오페레타와 빈의 전통 가요들은 모두 전쟁 발발 직후 광적인 애국심과 전쟁에 대한 열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 사이에는 음반 제목('인류 최후의 날들')의 작자이자 전쟁을 풍자했던 칼 크라우스의 논설 〈In dieser grossen Zeit(이 중대한 시기에)〉 등이 낭송되고 있다. 전쟁 초기 여러 목소리들을 아우르고 있는 균형감이 돋보인다.

99117

**베토벤 피아노 3중주 3집**

트리오 반 베토벤

**'전원시'를 연상시키는 연주**

트리오 반 베토벤의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전집 세 번째 음반이다. 음반에는 피아노 3중주 1번의 세곡 중 두 번째 작품, '유령'과 함께 에르되디 백작 부인에게 헌정된 피아노 3중주 6번 중 2번째 작품, 베토벤의 연인 중 한사람인 안토니 브렌타노의 딸, 막시밀리안 브렌타노의 피아노 연습을 격려하기 위해 작곡된 '알레그레토'(WOo. 39)가 수록되어 있다. 트리오 반 베토벤의 산뜻한 연주는 작품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렁이는 물결에 반사되는 햇빛의 인상은 워즈워스의 '전원시'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

##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678

**우스트볼스카야: 피아노 협주곡/ 실베스트로프: 네 개의 후주곡/ 칸첼리: 산들바람 등**

엘리사베타 블루미나(피아노),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토마스 잔더링(지휘)

**구 소련의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태어난 대가들의 특징적인 작품들**

블루미나는 언드라시 쉬프와 라두 루프의 제자로, 에코 클래식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구 소련의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 태어난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다. 우스볼스카야는 페트로그라드(상트페테르스부르크) 태생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애제자였다. 그녀는 감상적이면서도 당돌한 표현력으로 개성이 강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실베스트로프는 키에프 출신으로 명상적이면서 선율적인 음악을 썼다. 그루지야 태생의 칸첼리는 암울한 세기말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다. 블루미나는 이러한 각 작곡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명곡들을 선택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688

**카즐라예프: 낭만적 소나티나, 다게스탄 앨범, 여섯 개의 전주곡, 그림 소품**

히사토 쿠스노키(피아노)

**다게스탄을 대표하는 작곡가 카즐라예프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피아노 작품**

무라드 카즐라예프(*1931)는 아제르바이잔 출신이지만 라크 민족으로서 다게스탄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사위이자 쇼스타코비치의 스승이었던 스타인버그의 제자였으며, 구 소련시절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민속음악을 기초로 하면서도 매우 세련되고 복잡한 화음을 구사하며 고급스럽고 드라마틱하다. 초기작인 〈낭만적 소나티나〉는 젊음의 열정이 넘치며, 〈다게스탄 앨범〉은 그의 놀랍도록 세련된 작법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그림 소품〉은 재즈 풍의 릴랙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06

**에네스쿠: 피아노 소나타 3번, 종소리 모음곡, 전주곡과 푸가 등**

호수 데 솔라운(피아노)

**완숙한 시기의 심오한 음악세계가 집약된 소나타 3번**

루마니아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했던 제오르제 에네스쿠(1881–1955)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으며 성공적인 작곡가로서 매력적인 피아노 작품들을 다수 남겼다. 22세에 완성된 〈종소리 모음곡〉은 영롱한 종소리 음향으로 사라방드, 파반, 부레 등 춤곡을 장식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작곡된 〈전주곡과 푸가〉는 바로크 음악에 대한 에네스쿠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54세 때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3번〉은 현대적인 감각과 인상주의적인 환상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완숙한 시기의 에네스쿠의 심오한 음악세계가 집약되어있다.

GP707

**에네스쿠: 발라드, 전주곡과 스케르초, 옛 스타일의 춤 모음곡 등**

호수 데 솔라운(피아노)

**쇼팽을 연상케 하는 유년기 시절의 완성도 높은 피아노 작품들**

루마니아 출신의 에네스쿠는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위대한 음악 천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작곡을 했다. 이 음반은 에네스쿠가 10대 때의 유년기 작품을 수록했다. 성숙한 시기의 작품에 비하면 단순하고 가볍지만, 작품 자체의 높은 완성도는 놀랍다. 전체적으로 〈스케르초〉와 〈발라드〉, 〈전주곡과 스케르초〉, 〈즉흥곡〉 등 제목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쇼팽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분에 이르는 대작 〈옛 스타일의 춤 모음곡〉은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엿보인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712
**프리드만의 피아노 편곡집**
요제프 바노베츠(피아노)
**남다른 감각으로 피아노를 관현악처럼 다룬 프리드만의 편곡**
이그나츠 프리드만(1882–1948)은 폴란드의 피아니스트로, 19세기의 전설적인 피아노 교사인 레셰티츠키의 제자였으며, 고도프스키, 로젠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는 여러 피아노 편곡을 남겼는데, 음색에 대한 남다른 감각으로 피아노를 관현악처럼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와 라모의 〈새들의 지저귐〉, 쿠프랭의 〈부드러운 팡숑〉 등 바로크부터 글루크의 〈멜로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들, 그리고 프랑크의 오르간 작품 〈전주곡과 푸가, 변주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다양한 시대의 작품들을 수록했다.

GP737
**루리에: 피아노 작품 1집**
기오르기오 코우클(피아노)
**루리에의 음악세계가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피아노 작품들**
루리에(1891–1966)는 글라주노프로부터 정통 러시아 낭만 음악을 전수받았지만, 러시아의 미래파 작곡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19세 작품인 〈다섯 개의 깨지기 쉬운 전주곡〉과 〈두 개의 에스탕피〉는 쇼팽의 서정성이 깊이 녹아있으며, 프랑스의 인상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네 개의 시〉과 〈마스크: 유혹〉은 스크리아빈적인 신비로움이 깃들기 시작하더니, 〈노래의 형식: 피카소에게〉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그런데 35세 때 작품인 〈작은 모음곡〉은 오히려 가벼운 리듬과 투명한 음향을 가진 유희적인 소품들이다.

## ICA Classics *www.icaclassics.com*

ICAC 5138
**엘가: 교향곡 1번, 서곡 '남쪽에서'**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 관현악단,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화려한 색채감과 섬세한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은 엘가의 첫 교향곡**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에드워드 엘가가 1908년에 〈교향곡 1번〉을 발표했을 때 "우리시대 최고의 교향곡이 탄생했다"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 곡은 영국적인 앤섬과 유럽적인 극적 전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1시간 가까이에 이르는 장대하고 중후한 드라마를 그린다.
우리시대의 거장 중 한 사람인 안토니오 파파노는 화려한 색채감과 섬세한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 곡이 갖고 있는 매력을 십분 끌어냈다.
서곡 〈남쪽에서〉는 이탈리아 알라시오에서 여름을 보내며 쓴 곡으로, R. 슈트라우스를 연상케 하는 화려한 음향과 밝은 정서가 가득하다.

ICAC 5139
**슈만: 교향곡 2번, 4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 관현악단,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저변에 있는 극적인 운동성을 일깨우는 우리시대 거장의 연주**
슈만의 네 개의 교향곡 중에서 〈교향곡 1번 '봄'〉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장대한 규모에 남다른 극적인 표현력을 갖춘 〈교향곡 2번〉이 자주 무대에 오르면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시대의 거장 중 한 사람인 안토니오 파파노는 특히 이 곡의 저변에 있는 극적인 운동성에 집중하고 있다. 40분에 이르는 긴 여정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이미지로 가득하다.
〈교향곡 4번〉은 2번보다 5년 정도 앞서 작곡된 곡으로, 장엄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압도한다.
파파노는 이 곡에서 베토벤적인 무게감과 슈베르트적인 감수성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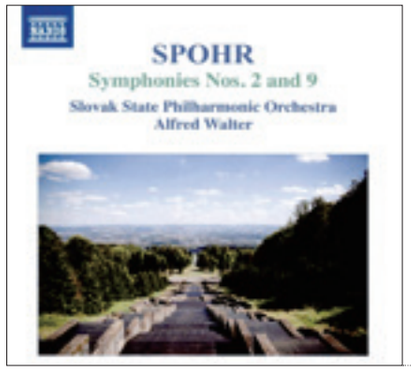
## MD&G *www.mdg.de*

321 0181–2
**앙코르**
폴란드 챔버 오케스트라, 예시 막시미우크(지휘)
**후기 바로크부터 고전에 이르는 18세기 음악의 향연**
독일의 후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바흐, 헨델, 텔레만과 함께 모차르트의 음악을 수록했다. 모차르트의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중 유명한 1악장을 비롯하여 여러 활기찬 디베르티멘토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 우리 귀에 익숙한 폴로네이즈와 바디네리, 헨델의 '할렐루야' 만큼이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시바의 여왕' 서곡〉 등 '앙코르'라는 타이틀에 맞게 우리에게 낯익은 작품들로 채워져 18세기 음악의 향연을 벌인다. 이외에도 CPE 바흐의 감상에 젖은 〈첼로 협주곡〉 2악장과 텔레만의 유쾌한 〈목가풍의 서곡〉이 수록되었다.

601 0317–2
**야나체크: 모음곡/ 마르티누: 파르티타, 세레나타 2번/ 칼라비스: 2부작**
수크 챔버 오케스트라, 요제프 블라흐(지휘)
**체코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로 피어오르는 현의 향연**
체코의 근현대를 대표하는 세 작곡가의 음악을 수록했다. 레오시 야나체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에 소개되어 잘 알려진 작곡가로, 20대 초의 초기작인 〈현을 위한 모음곡〉은 드보르작의 영향을 받은 섬세하고 낭만적인 작품이다. 보후슬라프 마르티누는 체코 민속 리듬과 드뷔시의 인상주의적인 화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곡가로, 그의 〈파르티타〉와 〈세레나타 2번〉은 세련되면서 활력이 넘친다. 빅토르 칼라비스는 가장 자주 연주되는 20세기 체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현을 위한 2부작〉은 섬세한 감성과 현대적인 터치가 돋보이는 수작이다.

## Naxos

www.naxos.com




8.555540

**슈포어: 교향곡 2번 & 9번(사계)**

코시체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프레드 발터(지휘)

**슈포어판 '런던 교향곡' & 원숙기의 걸작**

런던에서 초연된 슈포어의 교향곡 2번은 그에게 대중적인 성공을 안겨준 작품이자 작곡가로서 입지를 확립한 작품이다. 하이든의 '런던 교향곡'에 빗댈 수 있을 정도의 영감과 찬사가 담긴 교향곡 2번과 같이 수록된 완숙기의 걸작 교향곡 9번 '사계'는 겨울에서부터 시작해 가을에 이르는 계절의 흐름을 담고 있다. 알프레드 발터와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작품의 극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교향곡 9번 마지막 악장(가을)에서는 묵직하고 풍부한 음향까지 더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다.

8.572831

**에르킨: 교향곡 2번, 바이올린 협주곡 외**

제임스 버스웰(바이올린), 이스탄불 국립 교향악단, 테오도레 쿠차르(피아노)

**터키 현대음악의 대가가 쓴 역동적이고 화려한 관현악 작품들**

울비 케말 에르킨은 나디아 불랑제의 제자이며 사이쿤, 레이, 알나르, 아크세스와 더불어 '터키 5인조'의 일원으로 터키 현대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가 터키 전통 춤곡인 쾨셰크에서 영감을 얻어 쓴 랩소디 '쾨셰크셰'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악상을 지닌 랩소디로, 작곡가의 명성이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에르킨의 교향악 작품 중 정점에 해당하는 '교향곡 2번'의 피날레도 쾨셰크 풍의 악상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서양 고전음악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마지막 악장에는 터키의 전통 즉흥연주 양식인 탁심을 도입하고 있다.

8.573262

**존 필드: 피아노 협주곡 7번 & 아이리시 협주곡 외**

벤자민 프리스(피아노), 노던 신포니아, 데이비드 하슬람(지휘) 외

**존 필드 특유의 맑은 서정이 담긴 피아노 협주곡**

우리에게 '녹턴'으로 익숙한 존 필드는 녹턴 이외에도 7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 다수의 피아노 작품을 남겼다. 초연 당시 쇼팽과 리스트가 자리를 함께했던 피아노 협주곡 7번,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을 개작한 아이리쉬 협주곡, 스승인 클레멘티에게 헌정한 피아노 소나타 4번이 수록된 본 음반은 너른 스케일 속에 생동하는 존 필드 특유의 맑은 서정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다년간 존 필드의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해오고 있는 벤자민 프리스의 재능과 노력이 담겨 있어 더욱 뜻 깊은 음반이기도 하다.

8.573264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2집**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피아노 작품 만큼이나 폭넓고 다채로운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두번째 음반**

낙소스에서는 그라나도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관현악 작품들을 조망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본 음반에는 고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그라나도스의 대표작 '고야의 사람들' 중 간주곡을 비롯해 '교향시 단테'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스페인의 정취와 더불어 드뷔시, 바그너(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색채와 스케일은 2집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강렬한 음색과 리듬감, 일렁이는 선율을 보여주는 파블로 곤잘레스와 악단의 연주는 1집(8.573263) 만큼이나 매력적이다. *** '녹색 눈의 춤'(2번 트랙), '집시의 춤'(3번 트랙), '죽은 자의 밤'(4번 트랙) 세계 최초녹음**

8.573351

**브루노 발터: 바이올린 소나타 & 피아노 오중주**

패트릭 비다 & 예카테리나 프로로바(바이올린), 스테파니 후버(첼로), 사토 마리(피아노) 외

**자신만의 어법을 찾아가는 작곡가 브루노 발터의 모습**

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지휘자 이전에 작곡가였다. 그는 빈 분리파를 모델로 결성된 빈 작곡가 협회(창조적인 작곡가를 위한 모임)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말러의 빈 서클 핵심 멤버인 니나 스피글러에게 헌정된 피아노 오중주는 브람스와 슈만의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다. 한편, 브루노 발터의 마지막 실내악 작품인 바이올린 소나타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각기 대조적인 색채를 이용해 말러의 교향곡을 연상시킬 법한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작곡가로서 자신의 어법을 찾는 여정을 느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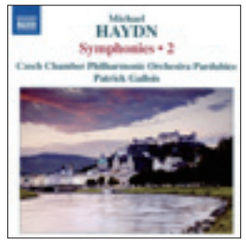
8.573376

**바흐: 플루트 소나타(BWV 1030–1035)**

파울리나 프레드(플루트), 아포 하키넨(하프시코드)

**괴텐시대의 수수께끼를 되짚어가는 플루트의 그윽한 선율**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는 작곡 연대뿐만 아니라 바흐 작품 여부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 작곡 연대는 대략 바흐가 기악 작품에 몰두한 괴텐 시대로 추정된다. 바흐의 하프시코드 작품들을 녹음해오고 있는 아포 하키넨은 본 음반에서 괴텐 시대의 수수께끼를 되짚어 가고 있다. 날카롭고 서늘한 다른 음반들과 구별되는 산뜻한 하프시코드와 그윽한 플루트의 음색은 번뜩이는 영감과 그 이면의 서정에까지 이른다. 바흐 플루트 소나타의 폭 넓은 스펙트럼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음반이다.




8.573498

**미카엘 하이든:**
**교향곡 2집(P.17 · 18 · 22 · 42)**

필립 드보르작(하프시코드), 파두리체 체코 첸버 오케스트라, 패트릭 갈루아(지휘)

**1집보다 한층 우아하고 당당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들**

미카엘 하이든의 교향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잘츠부르크 시절, 1772년부터 1785년 사이에 작곡된 4개의 교향곡이 수록되어 있다. 전작에 수록된 작품들이 산뜻하고 감미로운 분위기를 띠고 있는데 비해 이번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우아하고 당당한 매력을 보여준다. 패드릭 갈루아와 악단은 전작보다 한층 선 굵은 연주로 작품의 매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연주 속에서 트랙이 거듭될수록 작곡가의 형인 요제프 하이든의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고전'의 매력은 한층 더 짙어진다.

8.573528

**스크리아빈: 피아노 작품 2집**

이소연(피아노)

**쇼팽과 리스트를 연상시키는 서정과 스케일**

특유의 몽환적이며 투명하고, 가슴 시린 서정을 보여주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작품들은 '음악으로 빚은 묘약'이라는 말에 어울릴법하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색채가 더해진 후기의 작품들과는 달리 초기 작품은 쇼팽과 차이코프스키 등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작품들을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환상곡과 즉흥곡을 비롯한 초기 작품들을 담고 있다. 균형감과 스케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이소연의 연주는 '환상곡 B단조'에서 빛을 발한다. 1집( 8.573527)과 함께 감상할 것을 권한다.

8.573523

**윌리엄 마티아스: 합창 음악**

세인트 앨번스 성당 소녀 합창단 & 세인트 앨번스 성당 평신도 합창단, 톰 윈페니(지휘)

**고풍스럽고 세련된 윌리엄 마티아스의 합창음악**

지난 세기 웨일즈의 음악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작곡가 윌리엄 마티아스는 1981년 로열 웨딩에 쓰인 앤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로 잘 알려져 있다. 60세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생애 속에서도 그는 기악과 합창 음악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본 음반에는 그의 합창 음악의 정수를 담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 중에는 그의 첫 번째 합창 음악 작품인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송하나 이다'와 마지막 작품인 '주기도문'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고풍스럽고 세련된 매력이 각별하게 다가온다.

8.573518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6번 & 왈츠 모음곡**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린 알솝(지휘)

**가면과 그 안의 상처입은 내면 모두를 아우르는 연주**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6번은 자신을 향해 '형식주의'의 낙인이 다가오는 와중에 작곡된 작품으로서 전쟁의 참상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악화된 건강에 기인한 중압감이 도처에 깔려 있다. 교향곡 6번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 '왈츠 모음곡'은 '전쟁과 평화'와 '신데렐라' 등 이전 작품들을 기초로 작곡되었다. 마린 알솝과 상파울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언뜻 프로코피에프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렇지만, 종종 드러나는 우울감과 중압감은 오히려 가면과 그 속의 내면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8.573529

**자도르: 크리스마스 서곡 & 성경 삼부작(세 폭의 제단화) 외**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리우스 스몰리(지휘)

**자도르 음악의 정수가 담긴 작품들**

'벤허'를 비롯한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예노 자도르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시리즈 네 번째 음반이다. 빈 시기에 작곡된 '대 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랩소디'는 헝가리 민속 악기 타로가토의 선율을 모방한 알토 색소폰을 비롯해 헝가리 민속 음악의 색채가 매력적인 작품이다. 토마스 만의 소설, 《요셉과 그 형제들》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성경 3부작(세 폭의 제단화)'는 요셉과 다윗, 바울을 주제로 각 인물의 삶에서 극적인 대목들을 담고 있다. 서사적 스케일이나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 모두 자도르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 '크리스마스 서곡(1번 트랙)' 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548

**로드리고: 가곡집(기타 반주 버전)**

호세 페레로(테너), 마르코 소시아스(기타)

**기타 반주로 편곡된 로드리고의 가곡들**

로드리고의 기타 작품에 비해 다른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에 그의 가곡들이 수록된 본 음반이 선사하는 놀라움은 더욱 크다. 음반에 수록된 로드리고의 가곡들은 작곡 당시 피아노 반주로 연주되었으나, 기타리스트 마르코 소시아스가 로드리고의 딸인 세실리아 로드리고의 양해를 얻어 기타로 편곡했다. 기타로 편곡된 로드리고의 가곡들은 로드리고의 가곡 더구나 피아노 반주라는 의외성을 한층 상쇄시킨다. 의외성을 참신함으로 바꾸는 기타의 익숙함과 저녁노을 빛 감성이 담긴 노래 모두 매력적이다.

*** 3–12번 트랙, 16번, 18번 트랙, 20–24번 트랙(마르코 소시아스 편곡), 세계 최초 녹음**

8.573624

**페르난도 소르: 24개의 순서적 연습곡 & 6개의 소품**

노르베르트 크라프트 & 제프리 맥패든(기타)

**기타의 베토벤, 페르난도 소르의 연습곡 작품들**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한 페르난도 소르는 '기타의 베토벤'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는 기타가 작은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타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려 노력했다. 1828년 무렵 기타 학습자들을 위해 작곡된 '24개의 순서적 연습곡'과 '6개의 소품'은 단순히 기교뿐만 아니라 내면의 여러 인상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망라하고 있다. 입문에서부터 중급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능숙한 전개는 결코 쉽지 않기에 노르베르트 크라프트와 제프리 맥패든의 역량은 더욱 돋보인다.

8.573628

**리스: 변주곡 & 환상곡 & 론도**

미카엘 찰카(포르테 피아노)

**연주 여행에서 받은 다양한 인상이 표현된 작품들**

페르디난트 리스의 변주곡과 환상곡 그리고 론도가 담긴 음반이다. 수록된 작품에는 리스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여행했을 당시 받았던 인상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런던에서의 성공을 반영하는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퀘어 피아노의 유행에 발 맞춰 대중적인 선율을 주제로 작곡된 변주곡과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는 환상곡 모두 피아노 연주자이자 작곡가로서 리스의 면모를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영화 속 어리숙한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의 색채와 미카엘 찰카의 뛰어난 연주를 느낄 수 있어 짐짓 미소 짓게 된다.

*** '꿈'(2번 트랙), '쉴러의 시 〈체념〉에 의한 변주곡'(4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658

**본 윌리엄스의 영화음악들(49도선 외)**

RTÉ 콘서트 오케스트라, 앤드류 페니(지휘)

**인상을 묘사하는데 능숙했던 본 윌리엄스만의 색채와 영화의 만남**

본 윌리엄스의 영화음악은 교향곡 9번에 이르는 작곡 여정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본 윌리엄스는 당대의 다른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음악을 일회성 작품으로 보았으며, 다른 장르에 비해 낮게 평가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교향곡 7번으로 이어진 '남극의 스코트'를 계기로 바뀌게 된다. 본 음반에는 그의 첫 번째 영화음악인 '49도선'과 마지막 영화음악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잉글랜드'등 총 네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인상을 묘사하는데 능숙했던 본 윌리엄스 만의 색채와 장대한 스케일은 영화 속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8.573665

**막시밀리안 스타인베르그: 수난주간**

클라리온 합창단, 스티븐 폭스(지휘)

**러시아 정교회 성가의 예스런 풍모와 단아한 음향이 돋보이는 작품**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제자이자 사위인 막시밀리안 스타인베르크의 합창곡 '수난주간'이 수록된 음반이다. 모두 16개 곡으로 구성된 '수난주간'은 4곡의 즈나메니 성가, 1곡의 키에프 성가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곡은 러시아 정교회 성가를 모티브로 작곡되었다. 약 10여전 전에 그레차니노프도 같은 이름의 작품을 완성했는데, 스타인베르크의 '수난 주간'은 이것과 제목만 비슷할 뿐 작품의 구성이나 색채 모두 다르다. 러시아 정교회 성가의 예스런 풍모와 단아한 음향은 라흐마니노프의 '철야기도'를 연상시킬 정도로 감동적이다.

8.573670

**주앙 카를로스 빅터: 기타 리사이틀**

주앙 카를로스 빅터(기타)

**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작품들에 투영된 연주자의 영감**

2015년 타레가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한 주앙 카를로스 빅터의 음악적 역량이 발휘된 음반이다. 그는 자신이 편곡한 다울랜드의 '판타지아' 3곡사이에 로드리고, 타레가, 마리오 테데스코 등의 작품 및 자신에게 헌정된 파울로 필류의 '레페테'를 배치했다. 다울랜드의 작품에 대한 편곡과 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작품에 투영된 영감은 언뜻 음반의 주인공인 주앙 카를로스 빅터 자신이 세고비아의 재래를 꿈꾸고 있음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꿈에 걸 맞는 자신만만한 연주만큼은 인상적이다.

*** '레페테'(8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59806

**코플랜드: 발레 음악 2집**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레트킨(지휘)

**헐리우드 고전 영화를 연상시키는 음향과 분위기**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레너드 슬레트킨의 코플랜드 발레작품 시리즈 두 번째 음반에는 코플랜드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애팔래치아의 봄'을 비롯해 미국 출신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루스 페이지를 위해 작곡한 'Hear Ye! Hear Ye!(들어보시오!)'가 수록되었다. 코플랜드의 작품에 흐르는 미국적인 색채, 재즈와 블루스 등의 요소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악단의 연주는 헐리우드 고전영화를 연상시킨다. 데이비드 밀러의 산뜻한 연주(8.559782, 애팔래치아의 봄, 7월 발매)와 구별되는 원숙미가 인상적이다.

8.573513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 4번 & 5번**

헤닝 크라게루드(바이올린), 노르웨지언 첨버오케스트라

**정교한 짜임새, 경쾌하고 짜릿한 연주**

시벨리우스, 신딩, 이자이의 굵직한 작품들에서 부터 노르웨이 작곡가들의 소품에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에 이르기까지 고루 뛰어난 연주를 보여준 헤닝 크래거루드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을 녹음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의 카덴차를 작곡하기도 했던 그는 본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5번 모두 자신의 카덴차를 사용해 연주하고 있다. 전작들의 정교한 짜임새는 본 음반에서도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경쾌한 분위기와 공명, 바이올린의 짜릿한 질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의 몰입을 선사한다.

8.571375–76

**말콤 윌리엄슨: 오르간 작품**

톰 윈페니(오르간)

**메시앙으로부터 얻은 영감의 종교적 승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작곡가 말콤 윌리엄슨에게 있어 메시앙의 음악, 그 중에서도 오르간 작품은 말콤 윌리엄슨의 음악적 영감이자 오르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을 만큼 각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말콤 윌리엄슨의 오르간 작품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듯 메시앙의 오르간 작품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위에 화려하고 극적인 색채가 입혀져 있다. 메시앙의 영감을 통해 승화되는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톰 윈페니의 연주 역시 메시앙의 오르간 작품들이 담긴 전작들의 면모 위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불의 부활(부활절 1959년)'(2번 CD 1번 트랙), '〈이것이 내 주의 세상입니다〉에 의한 환상곡'(2번 CD 1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265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3집**

다니 에스파사(피아노),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이국적인 색채와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이 돋보이는 작품들**

그라나도스 초기작인 '오리엔탈 모음곡'과 완숙기의 작품인 '릴리아나'(카잘스 편곡), '엘리센다'가 수록된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3집의 구성은 언뜻 2집과 비슷한 듯 느껴진다. 그렇지만, 수록된 작품들은 각각 그라나도스가 이국적인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 카탈루냐의 인상을 다루는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과 함께 바그너와 인상주의로 부터 받은 영향을 보다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라나도스의 감성을 표현하는 악단의 연주와 음향은 여전히 뛰어나다. 특히, '엘리센다'에 담긴 서정은 '새의 노래' 만큼이나 뭉클하다.

*** '엘리센다'(9–11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286

**라벨 & 드뷔시: 두 대의 기타로 편곡된 작품들**

크로마 듀오

**기타 연주로 느껴보는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들**

편곡의 묘미는 원곡의 숨겨진,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두 대의 기타로 편곡된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의 매력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트레이시 앤 스미스와 롭 맥도널드로 구성된 크로마 듀오는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를 제외한 전곡을 직접 기타 이중주로 편곡했다. '골리워그의 케이크워크'의 경쾌한 리듬감이나 '달빛'의 여백,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의 절묘한 화음과 몽롱한 흐름은 기타 편곡 버전에서 한층 명쾌하게 다가온다. 다른 버전에 비해 담백하지만, 행간의 매력과 여운은 풍부하다.

8.573327

**헤르만 괴츠: 피아노 협주곡 1 & 2번, 봄 서곡**

다비데 카바시(피아노), 마그데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킴보 이시이(지휘)

**밝은 분위기와 명징한 음향 속에 흐르는 사색적인 선율**

헤르만 괴츠는 불과 36년의 삶 동안 오페라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비롯해 살내악, 관현악 등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다수 작곡하는 한편 비평가로도 활동했다. 구스타프 말러 등이 괴츠의 작품 세계를 적극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작품 세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멘델스존과 모차르트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괴츠의 성공작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비롯해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다. 밝은 분위기와 명징한 음향 속에 흐르는 사색적인 선율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낸다.

8.573462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 콘서트 환상곡**

엘다 네볼신(피아노), 뉴질랜드 심포니오케스트라, 마이클 스턴(지휘)

**화려한 기교 & 자유분방하고 호쾌한 연주**

아이작 스턴의 아들이기도 한 지휘자 마이클 스턴은 생상스, 본 윌리엄스 등의 음반에서 지휘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입증해왔다. 2005년 리히터 콩쿠르 우승자인 우즈베키스탄의 출신의 엘다 네볼신과 함께 녹음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협연자와 지휘자 모두에게 잊지못할 음반이 될 법하다. 눈부신 기교, 자유분방하고 호쾌한 연주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오리지널 버전의 아우라는 피아노 협주곡 1번과 개정판의 그늘을 가뿐히 벗어날 만큼 매력적이다. '콘서트 환상곡'의 호방한 스케일과 아기자기한 매력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8.573493–94

**프로베르거: 하프시코드를 위한 23개의 모음곡**

길렌 윌슨(하프시코드)

**연대순으로 편집한 프로베르거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로마에서 프레스코발디를 사사한 프로베르거는 이후 바흐로 이어지는 독일 건반음악에서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베르거의 하프시코드 작품들은 프레스코발디와 더불어 프랑스 악파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가 파리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글렌 윌슨은 프레스코발디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중 신뢰할 만한 23개 작품을 선별해 연대순으로 재구성했다. 다채롭고 우아한 음향, 청량감 있는 분위기를 살리는 하프시코드의 연주가 압권이다. 낙소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에세이는 음반의 가치를 높여준다.

8.573512

**스탠포드: 합창음악**

바흐 콰이어,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데이비드 힐(지휘) 외

**스탠포드 작품의 본령, 합창음악**

스탠포드의 합창음악은 협주곡이나 교향곡 등의 작품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작품 세계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라이프치히에서 라이네케에게 사사받는 동안 작곡된 '부활'은 클롭슈토크의 시를 가사로 사용했는데, 이는 약 20여년 후 말러가 그의 교향곡 2번('부활')에서 클롭슈토크의 시를 사용한 것을 예견한 듯한 느낌을 준다. 같이 수록된 '스타바트 마테르'와 '영혼의 노래' 모두 장엄하고 극적인 색채, 종교적인 희열과 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의 핵심을 짚고 있는 연주는 깊은 감동을 준다.

8.573522

**뱅상 댕디: 교향곡 2번 & 추억 & 이시타르 외**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장–뤽 탱고(지휘)

**음반 한장으로 조망하는 뱅상 댕디의 작품 세계**

뱅상 댕디의 작품들은 그가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 비교적 적게 조명되는 것 같다. 그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본 음반이 반가운 이유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전통의 틀 위에 민요 모티프와 종교적 색채를 더한 교향곡 2번은 프랑크 교향곡의 한 부분에 다양한 색채를 더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한편, 오페라 '페르발' 서곡은 바그너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비제와 프랑크 뒤카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녹음했던 장–뤽 탱고의 연주는 프랑스 음악의 전통을 잇는 작곡가의 위상을 조망하기에 부족함 없다.

8.573538
**스트라빈스키: 병사들의 이야기(1920년 버전) & 관악 8중주(1952년 개정판) & 결혼(1923년 버전)**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첸버 플레이어즈, 조앤 팔레타(지휘)

**스트라빈스키 음악 인생의 분기점 위에서 탄생한 작품들**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와 소편성에 담긴 다양한 작법이 돋보이는 '병사들의 이야기', 신고전주의로의 발걸음을 알리는 '관악 8중주', '봄의 제전'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발레 작품인 '결혼'은 모두 스트라빈스키 음악 인생의 분기점 위에서 탄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병사들의 이야기'(오리지널 버전)에서 보여준 조앤 팔레타와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첸버 플레이어즈의 생동감 있는 표현력은 '결혼'에서 다시 한 번 느껴볼 수 있다. 목소리와 타악기, 무용이라는 세 요소가 중심축을 이루는 작품의 특색을 드러내기에 제격이라 하겠다.

8.573600
**조르쥬 온슬로: 현악 5중주 1집**
엘란 5중주단

**도메니코 드라고네티의 인상이 반영된 현악5중주 작품**
베를리오즈와 슈만으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온슬로는 '프랑스의 베토벤'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는 34개에 이르는 현악 5중주를 남겼는데, 이 작품들은 현악 4중주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슬로의 현악 5중주는 제2첼로 대신 더블베이스를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런던에서 만났던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도메니코 드라고네티의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음반에 수록된 현악 5중주 20번에서는 콘트라베이스가 대체 편성되어있는 반면, 그로부터 14년 후에 작곡된 26번에는 정규 편성되어 있다.
*** '현악 5중주 op.20'(1–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 Ondine www.ondine.net

ODE1284–2 ***추천음반***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 2, 3번, 'F.A.E. 소나타' 중 스케르초**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트(피아노)

**타협하지 않는 명료한 사운드에 섬세함을 더한 테츨라프의 감성적 드라마**
독일을 대표하는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통 레퍼토리를 섭렵하면서 독일어권의 음악 전통에 대한 탄탄한 해석을 들려주고 있다. 테츨라프가 이번에 내놓은 연주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이다. 테츨라프는 타협하지 않는 명료한 사운드를 들려주었는데, 이 음반에서는 여기에 섬세함을 더했다.
그래서 극적으로 표현하는 범위가 더욱 넓으며, 낭만적인 감성적 호소력을 지닌다. 라르스 포그트의 피아노는 테츨라프가 만드는 드라마에 반응하며, 다양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 ARTE

OACD9040D
**토마스 톰킨스: 송가 & 찬미가**
옥스포드 모들린 칼리지 합창단, 다니엘 하이드(지휘)

**6대의 비올과 합창이 빚어내는 명징한 음향, 눈부신 절제미**
북스데후데의 '고난 받으신 예수의 지체'와 매튜 마틴의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로 호평을 받은 옥스포드 모들린 칼리지 합창단의 신보이다. 윌리엄 버드와 함께 영국 르네상스 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토마스 톰킨스의 송가와 찬미가가 수록된 본 음반에는 전임 상주 콘소트인 판타즘이 참여했다.
6대의 비올과 합창이 빚어내는 명징한 음향과 눈부신 절제미는 톰킨스 송가의 핵심을 적확하게 짚어낸 듯 보인다.
한편, 본 음반은 1951년부터 30년간 합창단의 지휘를 맡았던 버나드 로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음반이기도 하다.

##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056
**열여섯 곡의 사랑 노래**
윌리엄 하워드(피아노)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열여섯 곡의 피아노 소품들**
윌리엄 하워드는 저명한 영국 피아니스트로, 그라모폰 크리틱스 초이스, 디아파종 도르 등 그의 음반들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음반은 특별히 호평을 받고 있는 레퍼토리인 슈베르트 〈세레나데〉,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슈만 〈헌정〉, R. 슈트라우스 〈내일〉 등 독일 낭만음악과 함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체코 작곡가들, 즉 스메타나 〈사랑〉과 드보르작 〈세레나데〉, 즈데네크 피비히 〈분위기와 인상, 추억〉, 비테슬라프 노바크 〈세레나데〉, 요제프 수크 〈사랑 노래〉 등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열여섯 곡의 사랑노래를 연주했다.

ORC100057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 쇼스타코비치: 24개의 전주곡 발췌(이상 비올라 버전)**
파이트 헤르텐슈타인(비올라), 페이쥔 쉬(제2비올라), 페이–야오 왕(피아노)

**차세대를 이끌어갈 비올라 연주자, 파이트 헤르텐슈타인의 면모**
바젤 심포니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인 파이트 헤르텐슈타인은 우리에게 바젤 오보에 사중주단으로 익숙하다. 이외에도 트리오 반더러, 이자이 사중주단의 객원 멤버로 활동한 그는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 비올라 부문 '앙리 루이 드 라 그랑쥬'상을 받기도 했다. 본 음반에서 헤르텐슈타인은 쇼스타코비치의 '24개의 전주곡' 중 10곡의 바이올린 버전을 본인이 직접 비올라 버전으로 편곡했다. 작품에 담긴 메세지가 살아있는 비올라 버전의 매력과 더불어 차세대를 이끌어갈 비올라 연주자, 파이트 헤르텐슈타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음반이다.

ORC100058
**브리튼: 미사 브레비스(op.63) 외**
템플교회 소년합창단, 로저 세이어(지휘)
**종교 음악과 통속 음악의 멋진 조화**
오르가니스트이자 템플 교회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로저 세이어는 영화 '인터스텔라' ost로 알려져 있다. 본 음반에서 그는 템플 교회 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벤자민 브리튼과 포레, 존 애쉬튼 토마스의 종교 음악과 더불어 브람스와 슈베르트의 가곡, 로드니 베넷, 허버트 그렉의 합창곡을 녹음했다. 합창단의 성격으로 부터 수록곡을 짐작해본다면, 로드니 베넷, 허버트 그렉의 작품은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전례음악에 지친 합창단을 위한 휴식의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투명한 교회음악과 익살스레 느껴지는 통속 음악의 조화는 즐겁기만 하다.

ORC100059 [2CDs]
**베토벤: 교향곡 5–8번**
코펜하겐 필, 란 슈이(지휘)
**싱그러운 분위기, 목관의 넘실거리는 공명**
중국 출신의 지휘자 란 슈이와 코펜하겐 필의 베토벤 교향곡 2집이다. 싱가포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녹음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란 슈이의 음악적 역량은 코펜하겐 필과의 녹음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란 슈이는 베토벤 교향곡 5–8번이 수록된 음반 전체에 걸쳐 빠른 템포와 일사 분란함을 견지하면서 여기에 넘실거리는 목관의 공명을 더하고 있다. 박진감 넘치면서도 싱그럽고 상큼한 분위기는 베토벤 당시의 트럼본을 통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매력은 교향곡 6번과 8번 2악장에서 절정을 이룬다. 본 음반의 백미라 할 만하다.

## Orlando *www.orlando-records.com*

or 0020
**소리의 지형**
트리오 클라비스
**춤곡으로 하나가 되는 인간의 세상!**
트리오 클라비스는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앙상블이다. 피아니스트는 러시아–아제르바이잔–터키의 문화에 걸쳐있으며, 바이올리니스트는 오스트리아계 멕시코인이며, 색소포니스트는 슬로베이나와 크로아티아에 걸쳐있다.
그리고 비엔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누구라도 춤과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리의 지형'이라는 이 음반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멕시코의 마르케스와 아르메니아의 하차투리안, 브라질의 발라–로부스, 미국의 거슈윈, 아르헨티나의 피아졸라, 일본의 사카모토까지 춤곡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된다.

## Proprius *www.proprius.com*

PRCD 2076
**클래식 여름 컬렉션**
유시 비욀링, 니콜라이 게다, 호칸 하게고르, 비르기트 닐손, 예테보리 심포니 등
**풍부한 북구의 화음들이 가득한 스웨덴 음악의 모든 것**
'클래식 여름 컬렉션'이라는 타이틀의 이 음반은 유시 비욀링, 니콜라이 게다, 호칸 하게고르, 비르기트 닐손, 예테보리 심포니, 헬싱보리 심포니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단체들이 연주한 아름다운 스웨덴 음악으로 채워져 있다.
수록된 곡들은 후고 알펜 등의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과 함께 전통음악과 TV 시리즈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
그런 만큼 이 앨범은 스웨덴 음악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악곡들과 합창곡들이 다수 수록되어 풍부한 북구의 화음들이 가득하다.

##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16006 [SACD] ***추천음반***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다니엘레 가티(지휘)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음악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연주**
지휘자 다니엘레 가티는 유럽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 중 한 사람이다.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음악원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코벤트가든 왕립 오페라 하우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볼로냐 극장,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를 거쳐 2016–17 시즌부터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를 맡게 되었다. 가티는 시노폴리를 연상케 하는 완벽주의적인 작품 해석으로 큰 명성을 얻고 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에서도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이 곡의 근본적인 음악적인 면을 성공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RPO www.rpo.co.uk

RPO013CD

**홀스트: 행성 & 서머셋 랩소디**

**매튜스: 명왕성**

캠브리지 싱어즈,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웨인 아웰 휴즈(지휘)

**말끔한 음향과 너른 스케일, 압도적인 금관**

2004년 오웨인 아웰 휴즈가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 지휘자를 맡았을 당시 출시된 음반이다. 뛰어난 연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녹음이 12년 만에 재출시 되었다. 음반은 홀스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행성'을 비롯해 서머셋에서 수집된 3개의 민요에 기초한 '서머셋 랩소디' 외에도 콜린 매튜스의 '명왕성'을 수록해 태양계의 구색을 갖추었다. 10여 년 전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된 사실을 떠올리면 다소 아이러니한 느낌도 갖게 되지만, 말끔한 음향과 너른 스케일, 압도적인 금관은 이런 사실을 잠시 잊고 작품에 빠져들게 한다.

RPOSP009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프롬스 마지막 날 밤 레퍼토리**

골드스미스 연합 합창단,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웨인 아웰 휴즈(지휘) 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는 프롬스 마지막 밤 레퍼토리**

7월 중순에서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지는 프롬스는 그 자체로 거대한 음악 축제이자 음악의 보물창고라 할 만큼 갖가지 매력적인 색채로 가득 차 있다. 로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시 매년 프롬스에 참가해 훌륭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롬스에서는 보통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을 맡고 있는데, 본 음반에서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프롬스 마지막 날 밤의 감흥을 느껴볼 수 있다. 프롬스 팬이라면 한번 쯤 상상해보았을 법한 음반이다. 프롬스 마지막 날 밤을 담고 있는 다른 음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유이다.

RPOSP053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오페라 작품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나토 발사도나(지휘)

**자연스러움이 살아있는 연주, 열창의 순간**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악단,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장르와의 소통을 통해 악단의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때마침 내한 공연을 앞두고 악단의 역량이 담긴 신보들이 발매되었다. 그 중 하나인 본 음반에는 로시니, 마스네, 푸치니, 마스카니의 오페라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지극히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작곡가만의 색채가 짙게 배어있는 역작들이다. 성악진의 열창과 탁월한 오페라 지휘자 레나토 발사도나의 자연스러움이 살아있는 연주가 빚어내는 극적인 순간이 매력적이다.

## Seattle Symphony Media www.seattlesymphony.org

SSM1010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드뷔시: 장난감 상자**

킴벌리 루스(피아노),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루도빅 모를로(지휘)

**러시아의 신동과 프랑스의 대가가 쓴 두 개의 걸작 발레곡**

스트라빈스키는 '불새'에 이어 1911년에 완성한 발레 '페트루슈카'의 대성공으로 일약 파리 음악계의 총아가 되었다. 드뷔시는 여기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가 1913년에 쓴 발레곡 '장난감 상자'는 인형이 주인공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악상 면에서도 '페트루슈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리옹 국립 오케스트라와 보스턴 심포니 등에서 경험을 쌓았고 2011/12년 시즌부터 시애틀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재직 중인 루도빅 모를로는 활기차고도 섬세한 해석으로 두 곡의 공통분모를 강조하고 있다.

SSM1011

**말러: 교향곡 10번(데릭 쿡 버전)**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 토마스 다우스고르(지휘)

**다우스고르가 날렵하고 명확하게 해석한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

다우스고르는 스웨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2014/15년 시즌부터는 시애틀 심포니의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완성으로 끝난 말러의 '교향곡 10번'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데릭 쿡의 완성본으로 녹음했다. 다우스고르는 스산한 1악장 첫머리부터 체념 어린 위안을 주는 피날레 마지막까지 전곡을 큰 아치형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각 파트의 색채감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악상을 매우 날렵하고 명확하게 부각하며, 시애틀 심포니의 명쾌한 금관은 여기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SSM1013

**뒤티외: 관현악 작품집**

시애틀 심포니, 뤼도빅 모를로(지휘)

**뒤티외의 질문에 대해 확고한 자기 신념으로 제시하는 명쾌한 대답**

시애틀 심포니는 그동안 가장 미국적인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1년에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뤼도빅 모를로는 프랑스인으로서, 시애틀 심포니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다. 뒤티외의 관현악 작품을 담은 이 음반은 그 핵심이다. 뒤티외의 음악은 변화하는 진행과 현대적 화음이라는 음악적 특색을 지니며, 철학적 사유과 초월적 신비라는 주제를 품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질문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시애틀 심포니의 연주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한다. 확고한 자기 신념이 느껴지는 명쾌한 연주이다.

## Simax Classics www.simax.no

PSC1337

**종달새: 크리스티안 이흘레 하들란드의 피아노 리사이틀 3집**

크리스티안 이흘레 하들란드(피아노)

**미묘한 인상을 표현하는 섬세한 터치, 가슴시린 감성**

2011년 BBC 신세대 연주자에 선정된 크리스티안 이흘레 하들란드는 그리그의 '첼로소나타', 신딩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의 음반에서 인상 깊은 연주를 보여주었다. 또한 SIMAX 레이블에서 출시한 그의 솔로 앨범(PSC1307, PSC1332)들은 '피아노의 서정시인'이라고 부를 만한 면모를 각인시켰다. 2015년 노르웨이 그래미 어워드에 선정된 2집에 이은 3집에서는 멜랑콜리한 인상이 담긴 작품들을 주제로 삼았다. 작품의 미묘한 인상을 표현하는 섬세한 터치, 산산이 흩어지는 구슬을 보는 듯한 가슴시린 감성이 압권이다.

PSC1351

**하이든: 첼로협주곡 1번 &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K.364)**

클레멘스 하겐(첼로), 라르스 안데르스 톰테르(비올라), 얀 보란제르(바이올린, 지휘) 외

**그윽한 공명과 품격, 완벽에 가까운 연주**

하겐 사중주단으로 친숙한 클레멘스 하겐이 하이든의 음악적 영감과 마주했다. 모리스 장드롱을 연상시키는 그윽한 공명, 자유롭지만 품격을 잃지 않는 클레멘스 하겐의 연주는 완벽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입체감이 살아있는 1B1첨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더불어 1악장과 2악장에서 사용한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헤닝 크라게루드의 카덴차는 신선한 매력을 더한다. 같이 수록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에서는 얀 보란제르와 라르스 안데르스 톰테르의 재치 있는 앙상블을 느껴볼 수 있다. 감상을 강력 추천한다.

##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 239

**자넷 페리의 독일어와 프랑스어 가곡**

자넷 페리(소프라노), 장 르메르(피아노)

**맑고 깨끗한 음색과 고상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듣는 낭만 가곡**

미국 태생의 소프라노 자넷 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극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으며, 성장한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베른 예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섬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페리는 어린 시절부터 변치 않는 맑고 깨끗한 음색을 유지하고 있으며, 섬세한 극적 표현력과 자연스러운 바이브레이션으로 고상하고 편안한 음성을 들려준다. 이러한 그녀의 목소리는 모차르트를 비롯한 독일어와 프랑스어 가곡 레퍼토리에 최적이다.

SM 244

**모차르트: 왕궁으로부터의 도피**

라 신틸라 데이 피아티

**오페라 한 편의 이야기를 모두 담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충실한 편곡 세트**

'라 신틸라 데이 피아티'는 취리히 오페라단에 소속된 '오케스트라 라 신틸라'의 목관 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 단체로, 이 오케스트라에서는 현대악기로 연주하지만 이 실내악 단체는 시대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왕국으로부터의 도피〉의 음악을 플루트를 제외한 목관들과 혼, 더블베이스, 타악기를 위해 편곡하여, 원곡이 갖고 있는 유쾌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킨다. 서곡과 피날레, 그리고 열다섯 곡의 아리아로 구성된 장대한 세트는 오페라 한 편의 이야기를 모두 담을 정도로 음악적으로 충실하다.

##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04

**슈만: 첼로 협주곡/ 베토벤: 크로이처 소나타 (현악오중주 편곡)**

쥘 베일리(첼로), 잉 사중주단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산뜻한 편곡과 뛰어난 연주**

슈만 〈첼로 협주곡〉과 베토벤 〈크로이처 소나타〉의 현악오중주 편곡을 수록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 쥘 베일리와 잉 사중주단이 작곡가 필립 래서의 도움을 받아 직접 편곡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자신들의 연주 스타일에 최적화되어있다. 투명한 화음과 깔끔한 선율 처리가 돋보이는 편곡으로 슈만의 음악세계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의 현악오중주 편곡은 1832년에 출판되었지만 편곡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편곡은 첼로 두 대를 넣어 저음을 강조함으로써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DSL–92205

**글래스: 열 개의 연습곡, '일루셔니스트' 모음곡, 드리밍 어웨이크 등**

브루스 리빙스턴(피아노), 에단 호크(낭송)

**매우 매혹적이며 굉장한 흡인력을 갖고 있는 글래스의 피아노 음악**

필립 글래스의 건반 음악은 그의 주요 장르 중 하나로, 연습곡을 비롯하여 자신의 영화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피아노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곡들은 단순한 화음을 반복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반복구조를 갖고 있지만, 서정적인 선율과 과감하게 변화하는 드라마틱한 화음 진행은 매우 매혹적이며 굉장한 흡인력을 갖고 있다. 리빙스턴은 "색채와 분위기의 거장"(뉴욕타임즈), "감각적인 연주"(월스트리트저널), "재능 있는 피아노의 시인"(뉴요커) 등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 음반에서 유명 배우 에단 호크가 낭송으로 참여했다.

DSL–92210

**천사들에 둘러싸여 성탄을 찬미하다**

앙상블 갈릴레이

**다양한 시대악기로 들려주는 고풍스럽고 정갈한 크리스마스 음악**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럽 각지에서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축제를 열었으며 찬양을 불렀다. 이 음반은 그뤼버의 〈고요한 밤〉을 비롯하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카탈루냐 등의 전통음악과 16~19세기의 다양한 작곡가의 크리스마스 음악이 수록되었다. '앙상블 갈릴레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이자 이탈리아 북부의 중요한 음악가였던 빈센초 갈릴레이의 이름을 딴 단체로, 리코더, 트라베르소, 감바, 에올리안 하프 등 다양한 시대악기로 고풍스러우면서 정갈한 연주를 들려준다.

## Stew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62 [2CDs]
**바흐: 6개의 파르티타**
세르게이 셰프킨(피아노)

**바흐 건반 음악에 대한 깊은 탐구, 정교함의 극치**
바흐에 대한 깊은 이해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세르게이 셰프킨이 본 레이블을 통해 선보이는 두 번째 음반이다. '프랑스 모음곡'에 이어 '6개의 파르티타'에서도 바흐에 대한 깊은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 본 음반에서 그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장식음이다. 첫 번째 음반에는 파르티타 2번 1곡이 두 곡 담겨 있는데 하나는 바흐의 장식음을, 다른 하나는 바흐 당시 제자들이 가필한 장식음을 사용했다. 그는 이것이 바흐 작품(프랑스 서곡 스타일 악장)의 장식음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한다. 정교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다. 필청을 적극 권한다.

30052
**하바나의 달: 라틴아메리카 작품집**
트랜스아틀랜틱 앙상블

**라틴아메리카 작곡가들에 대한 관심이 담긴 음반**
트랜스아틀랜틱 앙상블은 라틴아메리카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메리엄 애덤(클라리넷)과 이블린 울렉스(피아노)를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이들은 재즈와 라틴아메리카 음악적 요소들을 클래식 음악에 결합함으로써 보다 다가가기 쉬운 클래식 음악을 보여주는 한편, 미구엘 델 아귈라, 빌라 로보스 등 라틴 아메리카 작곡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작곡가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본 음반에서 트랜스아틀랜틱 앙상블은 달빛 아래 늦여름 밤 정취를 연상시킬만한 연주를 보여준다. 쉼의 순간과 함께 해도 좋을 음반이다.

30050
**피아졸라와 파블로 지글러의 '탕고 누에보'**
파블로 지글러, 크리스토퍼 오라일리(피아노)

**동고동락했던 '탕고 누에보'의 두 거장의 비슷하고도 다른 음악세계**
피아졸라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음악 '탕고 누에보'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피아졸라가 반도네온을 들고 '탕고 누에보'를 시작했을 때 건반 연주자로 함께 했던 파블로 지글러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그는 피아졸라와 수십 년을 함께 활동했으며, 그의 수많은 작품을 편곡했고, 자신도 뛰어난 탕고 누에보 음악을 작곡했다. 이 음반은 피아졸라와 자신의 작품을 수록하여 두 거장의 비슷하고도 다른 음악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오라일리와 함께 피아노 듀오로 연주했다.

30063
**나타샤: 나타샤 파렘스키의 피아노 리사이틀**
나타샤 파렘스키(피아노)

**아르헤리치를 떠오르게 하는 터치**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의 사랑을 그린 '트윈 스리피츠(Twin Spirits)'에서 피아노를 맡았던 나타샤 파렘스키는 런던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본 음반에는 가브리엘 커헤인이 그녀에게 헌정한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해 브람스, 프로코피에프, 발라키에프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은 이전에 발매된 몇 장의 음반에서 보여준 러시아 레퍼토리와 브람스 작품에 대한 그녀의 깊은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아르헤리치를 연상시키는 힘과 절도 있는 터치가 인상 깊다.

## Tactus www.tactus.it

TC580002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음악적 정동(情動)**
인 타베르나이 무지카

**인간의 감정이 여과없이 표현된 작품들**
음반의 제목이기도 한 '정동(情動, affetti)'은 인간 내면의 감정이 표정이나 행동 등을 통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인 타베르나이 무지카는 인간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인간과 음악의 상호 작용(인간의 손에 의해 탄생한 음악, 음악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무형의 가치)과 더불어 '정동 이론'에 주목했다. 바로크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 중에서도 인간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된 춤곡과 속요들을 연주하는 인 타베르나이 무지카의 연주는 언뜻 투박하고 충격적이지만, 트랙이 거듭될수록 정겨운 매력을 내뿜고 있다.

*** 1번 & 9번 & 12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TC870001
**파노 & 오미촐로: 첼로 소나타 & 피아노 소품**
로코 필리피니(첼로), 안드레아 바체티(피아노)

**고풍스런 매력이 담긴 파노와 오미촐로의 작품**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귀도 알베르토 파노와 실비오 오미촐로의 작품이 담긴 음반이다. 비슷한 작품 스타일을 구사하는 두 사람은 19세기–20세기 초 이탈리아 음악의 부흥에 힘썼던 체사레 폴리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파노가 스승인 주세페 마르투치에게 헌정된 '첼로 소나타', 원숙기의 작품인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두개의 소품', 아내 비앙카에 대한 애도의 뜻이 담긴 '추모(1892년 파도바)'를 비롯해 오미촐로가 첼리스트였던 친구를 위해 쓴 '짧은 소나타' 모두 대중적이면서도 고풍스럽다. 휴일 오후의 느긋함과 함께할 만하다.

##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008
**라이하: 피아노 작품 1집**
헨릭 뢰벤마르크(피아노)

**새롭게 조명되는 라이하의 피아노 작품들**
체코 출신의 작곡가 안톤 라이하는 하이든과 베토벤의 친구이자 베를리오즈, 리스트, 프랑크, 구노, 비외탕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목관 오중주를 비롯한 라이하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피아노 작품들은 생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잊혀졌다. 1980년대부터 라이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피아니스크 헨릭 뢰벤마르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현대 악보로 출판되지 않은 라이하의 피아노 작품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이 중 두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에서는 고전적이면서도 과감한 라이하만의 색채가 짙게 배어있는 푸가를 만끽할 수 있다.

*** 전곡 세계 최초녹음**

TOCC0235
**조반니 마리아 나니노: 합창 음악**
그루포 아르시 & 테시(합창), 토니 코라디니(지휘)

**후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작곡가 조반니 나니노에 대한 헌사**
후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조반니 마리아 나니노는 이 시기의 주목해야할 음악가 중 한사람이다. 팔레스트리나와 동문수학했던 나니노는 후에 산타 마리아 마죠레 성당의 악장으로서 팔레스트리나의 계승자가 되었으며, 알레그리의 스승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본 음반은 그의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음악을 비롯해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마드리갈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품위와 열정, 흑백 명암의 조화가 인상적인 '아르시 & 테시'의 해석은 잊혀진 조반니 나니노의 음악에 대한 감탄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 '내 사랑을 사그라들게 할 수 없습니다'(9번 트랙),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13번 트랙) 제외 세계 최초 녹음**

TOCC 0258
**쿠프랭: 레 나시옹 1권, 3권 등**
에머 버클리, 조슈웨드 슈바르츠(하프시코드)

**쿠프랭의 걸작에 담겨있는 18세기 프랑스 바로크의 온전한 매력**
버클리는 더블린에서 공부한 후 릴 음악원에서 가르치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슈바르츠는 텔아비브와 바젤, 파리 등에서 공부한 후 귀국하여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두 연주자는 파리의 한 워크숍에서 만난 후 출신과 공부, 근거지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 활동을 이어갈 정도로 남다른 정신적 교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쿠프랭의 두 대의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들에서 일치된 음악적 이상을 보여주며, 쿠프랭의 걸작 '레 나시옹'에 담겨있는 18세기 프랑스 바로크의 매력을 한껏 펼쳐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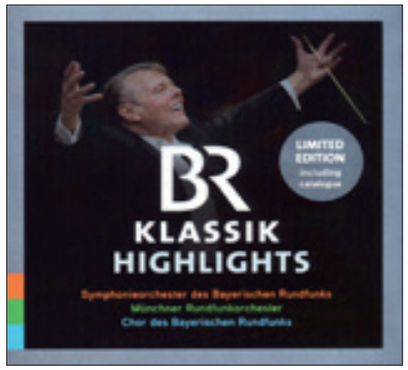
TOCC0352
**아키멘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타티아나 출로시니코바(바이올린), 아나스타샤 데딕(피아노)

**슬라브적 감수성과 신고전주의적 진중함의 간극**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곡가 테오도르 아키멘코는 상트 페테스부르크에서 발라키에프,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같이 공부했으며, 스트라빈스키의 첫 번째 스승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중후기 스타일과 차이코프스키 등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특히 서정적이고, 극적이며 우아함이 돋보이는 실내악과 소품들은 그 만의 색채를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장르이다. 2016 제프리 토마스상을 수상한 타티아나 출로시니코바와 아나스타샤 데딕의 연주는 슬라브적 감수성과 신고전주의적인 진중함 사기의 간극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 Coming Soon

*www.br-klassik.de*




900003
**BR-KLASSIK CD SAMPLER**
**PLUS Catalogue 2016** (ca. 56 pages)

01. CHABRIER: España – Rhapsodie für Orchester *Mariss Jansons*
02. DVORÁK: Symphonie Nr. 9 e-Moll, op. 95: 3. Satz, Scherzo. Molto vivace *Andris Nelsons*
03. HAYDN: Die Schöpfung / The Creation, Hob. XXI:2: Die Himmel erzählen die Ehre Gottes *Bernard Haitink*
04. BACH: Messe in h-Moll / Mass in B minor, BWV 232: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Peter Dijkstra*
05. BRAUNFELS: Verkündigung / The Annunciation: Zwischenspiel Ulf Schirmer
06. DVORÁK: Stabat mater, op. 58: Quando corpus morietur. Andante con moto *Mariss Jansons*
07. SIBELIUS: Finlandia, op. 26, Andante sostenuto – Allegro moderato Mariss Jansons
08. WAGNER: Das Rheingold: Rheingold! Rheingold! Reines Gold! Sir Simon Rattle
09. PÄRT: Berliner Messe / Berlin Mass: Gloria *Peter Dijkstra*
10. HÄNDEL: Der Messias / Messiah, HWV 56: Hallelujah! *Peter Dijkstra*
11. LORTZING: Zar und Zimmermann: Leb' wohl, mein flandrisch Mädchen *Fritz Wunderlich · Kurt Eichhorn*
12. TSCHAIKOWSKY: Pique Dame: Akt 2, Bild 3, Schlussszene, Kto pylko i strastno lyubya! *Mariss Jansons*
13. DVORÁK: Symphonie Nr. 8 e-Moll, op. 88: 3. Satz, Allegretto grazioso *Mariss Jansons*
14. MUSSORGSKY: Bilder einer Ausstellung / Pictures at an Exhibition: Das große Tor von Kiew / The Great Gate of Kiev *Mariss Jansons*





# 여성 포크가수 인디언 수니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정겨운 트로트 가락. '별빛 그대여, 이제 그만 마음 아파해라'

생명과 평화를 모토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인디언 수니(Indian Soonie)가
오래도록 사랑 받아 온 트로트 아홉 곡을 본인 만의 감수성으로 새롭게 해석한 네 번째 음반.

AMC2–164 [CD]

일반적으로 트로트라고 하면 생각하는 신나고 밝은, 속칭 '뽕짝 메들리'라고 불리우는 것과 달리 트로트가 가진 감수성은 매우 애절하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과 연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방황하거나 끝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이야기, 혹은 떠난 이를 하염없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남겨진 자들의 사연들을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로 풀어나간다.

어쿠스틱 기타를 베이스로 한 하모니카, 피아노, 멜로디언과 같이 귓속말처럼 다가오는 잔잔한 악기 구성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악기인 인디언 수니의 목소리와 함께 자극적인 음악에 지친 우리의 귓가에 살랑거리며 다가온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마냥 신나거나 처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토록 듣는 이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니!
인디언 수니와 친구들이 선물하는 가을의 쉼표 하나.

**[수록곡]**

1. *과거를 묻지 마세요*
2. *애수의 소야곡*
3. *낭낭 18세*
4. *황성 옛터*
5. *나그네 설움*
6. *봄날은 간다*
7. *댄서의 순정*
8. *빈대떡 신사*
9. *이별의 종착역*

**[기존발매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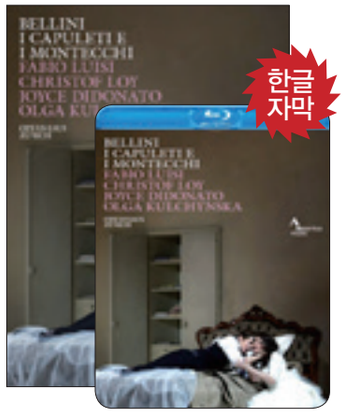
AMC2–134 [CD]
**인디언 수니: 첫 번째**
'내 가슴에 달이 있다'

AMC2–135 [CD]
**인디언 수니: 두 번째**
'비 오는 날 해바라기'

AMC2–107 [CD]
**인디언 수니: 세 번째**
'노스텔지아'

##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 20353 [DVD]
Accentus ACC 10353 [Blu-ray]

accentus music

### 벨리니: 캐퓰릿가와 몬태그가

조이스 디도나토(로미오), 올가 쿨친스카(줄리엣), 베냐민 베른하임(테발도),
크리스토프 로이(연출), 취리히 필하모니아, 취리히 오페라 합창단, 파비오 루이지(지휘)

**사실적이지만 절제된 연출과 자연스러운 극적 흐름이 돋보이는 해석**

벨리니의 비극 '캐퓰릿가와 몬태그가'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약간 개작한 작품으로, 로미오 역에 남성이 아닌 여성 성악가를 쓰고 있다. 요즘 기준에서 보면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당대에는 비교적 흔한 관행이었다. 예전부터 '바지 역할' 전문으로 명성이 높은 조이스 디도나토는 여기서도 최고의 연기력과 가창으로 줄리엣의 연인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으며, 줄리엣(줄리에타) 역의 올가 쿨친스카 역시 무리 없이 디도나토와 어울리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을 빚어내는 데 정평이 있는 파비오 루이지는 여기서도 탁월한 지휘로 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크리스토프 로이를 비롯한 연출진은 시대적 배경을 20세기 초로 잡았지만 절제된 연출로 등장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글자막 지원.**

**[보조자료]**

– 빈첸초 벨리니(1801~35)는 동시대인인 가에타노 도니체티(1797~1848)과 더불어 벨칸토 오페라의 쌍두마차로 일컬어진다. 로시니가 은퇴한 1829년부터 베르디가 실질적으로 데뷔한 1842년 사이에 이탈리아 오페라계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없었다. 그는 오늘날에는 1831년에 쓴 '몽유병의 여인'과 '노르마' 및 1835년 작 '청교도'의 작곡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오페라 작곡가로서 완성되어 있었으며 1830년에 베네치아에서 쓴 '캐퓰릿가와 몬태그가'(혹은 카풀리테가와 몬테키가)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 이 2막 오페라는 펠리체 로마니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이탈리아식으로 개작한 대본에 기초한 것으로, 1830년 3월 11일에 초연되었다. 이 곡은 작곡가 생전에는 큰 호평을 받았지만 사후에는 평가가 점차 하락했으며, 20세기 태반에 걸쳐 망각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주역인 로미오 역을 남장 여배우(이를 '바지 역할'이라 부른다)에게 맡김으로써 성격의 짜임새를 특수하게 만들었으며, 두 연인을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독립시킴으로써 후대 연출가들에게 이 작품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

– 이 영상물은 2015년 6월에 취리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로미오 역을 맡은 조이스 디도나토는 1969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리릭-콜로라투라 메조소프라노이다. 2012년과 2016년에 그래미상의 '베스트 클래시컬 보컬 솔로' 부문을 수상했다. 여성 성악가 가운데 드물 정도로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디도나토는 로시니의 '이탈리아 여인'에서 이사벨라 역을 맡는 등 통상적인 여성 성악가 역할도 많이 연기했으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에 등장하는 옥타비안 역 등 '바지 역할'에서 특히 진가를 보였으며, '캐퓰릿가와 몬태그가'에서 열연을 펼침으로써 다시금 자신만의 개성과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상대역인 줄리엣(줄리에타) 역을 맡은 올가 쿨친스키 역시 충실한 연기로 디도나토와 위화감 없이 어울렸으며, 테발도 역의 바냐민 베른하임이나 로렌초 역의 로베르토 로렌치, 카펠리오 역의 알렉세이 보트나르추크 등 남성 성악가들의 열연 역시 볼만하다. 무대 연출을 맡은 크리스토프 로이와 세트 및 의상 디자인을 맡은 크리스티안 슈미트 등 연출진은 이 오페라의 배경을 20세기 초로 잡았으며, 사실적이지만 매우 절제된 무대장치로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했다. 취리히 오페라의 회전식 무대는 극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각 장면을 매우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 이 오페라를 지휘한 파비오 루이지는 1959년 생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1991~2002)와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및 젬퍼오퍼의 수석지휘자(2007~2010),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2005~2013)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를 이끌 당시에는 묵직하고 고졸한 음색으로 정평 있던 동 오케스트라를 지극히 화사한 음색으로 바꿈으로써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을 다듬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석 객원지휘자가 되었고, 2011년에 제임스 레바인이 은퇴하자 상임지휘자로 승격되었다. 2012년에는 취리히 오페라단의 총음악감독에 취임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같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취리히 필하모니아라는 이름으로 이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콘서트도 지휘하고 있다. 2014년에는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의 차기 상임지휘자에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오랫동안 오페라 지휘로 단련된 루이지는 이 오페라에서도 극적 흐름을 자연스럽고 무리 없게 이끌어가고 있다.

Accentus ACC 20307 [2DVDs]

### 중국 국가대극원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루 지아(지휘),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 합창단, 호세 루이스 카스트로(연출),
아오 리(피가로), 후앙 잉(수잔나), 줘 정총(알마비바), 관쿤 유(알마비바 백작 부인)

**초호화 캐스팅의 중국성악가들로 만든 역작, '피가로의 결혼'**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국가대극원에서 제작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2014년 1월에 선보인 공연이다. 국가대극원 첸 핑 원장이 제작자로, 호세 루이스 카스트로가 연출한 이 프로덕션은 현대식 해석보다는 원전에 충실한 유럽식 연출과 무대를 느끼게 한다. 아오 리(피가로), 후앙 잉(수잔나), 줘 정총(알마비바), 관쿤 유(알마비바 백작 부인)는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대표 성악가들. 이 '별'들은 중국 오페라계의 약진을 단번에 체감하게끔 놀라운 기교와 연기력을 보여준다. 유럽 극장에서 활약하는 루 지아의 경쾌한 속도감이 배어나오는 지휘 역시 '중국 파워'를 더한다. 자막은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

**[보조자료]**

– 오페라 '투란도트'의 나라. 문화혁명기에 공동창작된 피아노 협주곡 '황하'의 생산지, 장예모의 창작발레 '홍등'의 나라. 바로 중국이다. 최근 중국이 클래식음악의 큰 시장으로 떠오른 것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센터인 중국 국가대극원(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이 2007년 개관하면서 대규모 자본의 오페라가 베이징을 거쳐 가고, 또 이곳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 이 영상물은 국가대극원에서 제작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으로 2014년 1월에 선보인 공연이다. '피가로의 결혼'은 스페인 세비야 인근 알마비바 백작의 저택을 배경으로 남장 여자, 여장 남자가 나오는가 하면 섹시한 하녀, 정력이 넘치는 주인 나리, 그리고 친자 확인 소동이 펼쳐지는 떠들썩한 익살극이다.

– 국가대극원 첸 핑 원장이 제작자로, 호세 루이스 카스트로가 연출한 이 프로덕션은 해석보다는 원전에 충실한 유럽식 연출의 무대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큰 매력은 중국 출신의 토종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중국 성악가들의 약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물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어벤져스'들이다.

–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피가로 역의 바리톤 아오 리(Ao Li)이다. 그는 2013년 베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성악콩쿠르인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랄리아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201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최종우승자에 선정된 바리톤이다. 2014년 샤오치아 뤼(Shao-Chia Lu) 지휘로 서울시향과 함께한 '예브게니 오네긴'의 주역으로 출연하여 국내에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수잔나 역에는 제임스 레바인과 메트오페라의 모차르트 '마술피리'에서 호흡을 맞추는 등 오르는 무대마다 중국의 파워를 맛보게 하는 소프라노 후앙 잉(Huang Ying)이다. 그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콜로라투라라고 할 정도로 맑고 고운 고음역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간다. 알마비바 백작 역의 바리톤 줘 정총(Zhou Zhengzhong), 알마비바 백작 부인 역의 소프라노 관쿤 유(Yu Guanqun) 역시 이 작품이 희극에 기반하고 있음을 웃음기 넘치는 연기로 열연한다.

– 2013년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바이올리니스트 닝 펑과 함께 내한하여 '중국 파워'를 선보였던 루 지아의 지휘는 시원하고 명쾌하다. 중국 성악가들 올 캐스팅이기 때문에 영상 속 성악가들의 모습은 유럽 무대의 성악가들과 느낌이 다르다. 하지만 중국 오페라와 성악가들의 음색은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본 영상(약 176분)과 함께 수록된 보너스 트랙(약 16분)을 통하여 연출가, 성악가, 지휘자가 바라보는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자막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 PCM스테레오, 돌비 디지털 5.1, DTS 5.1 오디오 기능은 2416석의 중국 국가대극원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의 울림과 국가대표 성악가들의 소리를 솔직하고 생생히 그리고 있다.

Accentus ACC 20338 [DVD]

## 푸치니: 투란도트

쑨 쉬웨이(투란도트), 다이 유퀴안(칼라프), 야오 홍(류) 외/ NCPA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다니엘 오렌(지휘)

**'메이드 인 차이나' 투란도트**

아시아 오페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북경에 위치한 NCPA에서 제작한 화려하기 그지 없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이전 장이머우가 연출한 자금성 실황은 주연급 성악가와 지휘자(주빈 메타)까지 외국인에 야외공연이었고 스케일이 큰 것 외에 무대 디테일은 그다지 섬세하지 못했던만큼, 지휘자인 오렌 외에 모두 중국인이 참여하고 홀 또한 NCPA 오페라 하우스에서 높은 화질과 음질로 제작된 이 버전이 중국산 투란도트의 진정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투란도트로 명성이 높은 쉬웨이의 절창과 유퀴안의 호쾌한 칼라프, 홍의 절절한 류는 여느 영상물 캐스팅에 못지 않게 훌륭하다. 3막 피날레는 중국 작곡가 하오 웨이야의 악보를 사용한 것 또한 이채롭다.

**[보조자료]**

– 아시아 오페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에서 유럽 오페라 제작 및 운영 수준을 급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곳이 바로 북경의 국가대극원, 즉 NCPA(China National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다. NCPA는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홀, 전통극과 뮤지컬 상연 극장을 하나의 건물 하에 위치시킨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센터로서 막대한 정부 지원 하에 매일 엄청난 수의 공연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스텝, 연출가들을 불러모아온 탓에 이제는 공연의 질 또한 대단히 높아져서 자체제작으로 시즌을 채워나가는 동시에 유럽의 프로덕션에 못지 않은 퀄리티와 흥행성을 더하며 나날이 만원사례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독일 Accentus 레이블을 통해 인터내셔널용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에 강한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연간 22개 정도의 프로덕션을 무대에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새로 제작한 뉴 프로덕션. 앞으로 모든 오페라의 무대를 자체제작하여 보유하는 것이 NCPA의 목표라고 하는 만큼 이들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본다.

– 여기 소개할 투란도트 영상은 2013년 10월의 실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첸 쉰이 감독이 제작한 프로덕션. 고전적인 연출로서 지극히 시각적이고 스케일 중심의 무대다. 특히 의상이 압도적인데, 아무래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인만큼 자신의 전통의상을 가장 잘 만들고 소화해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조명 때문에 제페렐리 무대의 의상만큼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적확한 디테일과 중국의상으로서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지휘는 다니엘 오렌이 맡아 유려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뽐어내는데, 푸치니가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3막 피날레를 중국 작곡가 하오 웨이야의 악보를 사용하여 온전히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투란도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투란도트로 명성이 높은 쉬웨이의 절창과 유퀴안의 호쾌한 칼라프, 홍의 절절한 류는 여느 영상물 캐스팅에 못지않게 훌륭하다. 실로 진귀하고 화려하며 음악적으로 시원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무서운 오페라계의 발전을 목도할 수 있어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러한 영상물이다.

##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MUSIK

Arthaus 109248 [DVD]
Arthaus 109249 [Blu-ray]

### 베토벤: 교향곡 전집

리카르다 메르베스, 다니엘라 신드람, 로버트 딘 스미스, 퀸터 그로이스뵉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필립 조르당(지휘)

**프랑스 베토벤의 새로운 전통을 발견하다**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기량 또한 보다 정밀하고 균형 있게 컨트럴하며 파리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필립 조르당.

파리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인 그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바스티유에서 가진 5회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이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과연 조르당의 실력은 명불허전. 1번부터 9번까지 타이트한 긴장감과 치밀한 합주력, 특유의 드라마틱한 극적흐름과 디테일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지금까지의 다른 베토벤 교향곡 녹음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진지함을 발산한다.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급이고 특히 화면의 콘트라스트와 다양한 앵글의 편집이 대단히 예술적이다. 한편 Born to Conduct라는 제목의 52분짜리 조르당 다큐멘터리가 한글자막으로 실려있어 그의 음악세계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너스 트랙도 이 전집만의 매력!!!
프랑스만의 베토벤 전통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역사적인 베토벤 교향곡 전집으로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보조자료]**

– 1669년 루이 14세 시절 오페라 아카데미(Académie d'Opéra)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창립된 파리 오페라. 무려 4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파리 오페라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왕이 바뀌거나 정치적 변혁을 겪거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재정 및 청중의 요구에 따라 무려 서른번에 가까운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루이 16세 때에는 음악 아카데미(Académie de Musique), 나폴레옹 왕정 때에는 황실 음악 아카데미(Académie Impériale de Musique), 왕정복고 시절인 샤를 10세 때에는 오페라 극장(Théâtre de l'Opéra), 1939년에는 통합 리릭 국립 극장(Réunion des Théâtres Lyriques Nationaux), 1978년에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Théâtre National de l'Opéra de Paris), 1990년 파리 오페라(Opéra de Paris), 1994년에 비로소 지금의 파리 국립 오페라(Opéra National de Paris)라고 이름을 정착시켰다. 음반이나 영상물을 보면 그 명칭이 시대별로 제각기 달라 전부 다른 극장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단체이다.

– 이 파리 국립 오페라는 나폴레옹 3세 때 지어진 가르니에 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89년에 완공된 바스티유 오페라 이후 두 개의 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파리에는 그 외에 로데옹 극장, 라 비유 극장, 샤틀레 극장, 샹젤리제 극장 등등이 더 있으니 이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극장이고 국립은 파리 국립 오페라가 활동하는 가르니에 극장과 바스티유 극장 두 곳이다. 전세계 극장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고전적이며 그 자체로 문화재인 가르니에 비해 바스티유 극장은 혁명을 기리기 위해 보다 서민적이고 현대적인 것이 특징. 특히 정명훈은 젊은 나이에 파리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1990년 베를리오즈의 트로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1994년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를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가 될 때까지 파리 국립 오페라의 수준과 명성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파리 국립 오페라의 소속 오케스트라의 이름은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은 무려 170여명으로서 그때 그때 팀을 나누어 가르니에(발레)와 바스티유(오페라)에서 연주를 하고 있고, 다른 극장 오케스트라들처럼 정기적으로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열고 있다.

– 필립 조르당(Philippe Jordan, b.1974)은 아민 조르당의 아들로서 20대에 이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지휘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슈타츠오퍼 운터 덴 린덴에서 다니엘 바렌보임 밑에서 카펠마이스터이자 어시스탄트를 지내며 독일음악과 오페라에 대한 튼튼한 실력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 덕분에 프랑스 음악은 물론이려니와 독일–오스트리아 음악에도 다른 프랑스 지휘자들보다 훨씬 더 독일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파리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선출되어 2009/10 시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2011년에는 비너 심포니커의 상임 지휘자로서 2014/15 시즌부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와 빈만의 독특한 음악전통의 대명사인 비너 심포니커 두 곳의 수장으로서 현재 세계 최고의 명성과 음악성을 내뿜고 있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손꼽힌다.

– 비너 심포니커의 음악적 기량을 단기간 내에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기량 또한 보다 정밀하고 균형 있게 컨트럴하며 파리 오케스트라와 같은 전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필립 조르당. 그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바스티유에서 가진 5회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사이클 실황 영상물이 블루레이로 발매되었다. 과연 조르당의 실력은 명불허전. 1번부터 9번까지 타이트한 긴장감과 치밀한 합주력, 특유의 드라마틱한 극적흐름과 디테일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이 지금까지의 다른 베토벤 교향곡 녹음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진지함을 발산한다. 무엇보다도 조르당 특유의 뜨거운 추진력과 정교한 컨트럴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음악적 감흥을 자아낸다.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급이고 특히 화면의 콘트라스트와 다양한 앵글의 편집이 대단히 예술적이라 시각적 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의 예술작품임을 실감할 수 있다. 한편 Born to Conduct라는 제목의 52분짜리 조르당 다큐멘터리가 한글자막으로 실려있어 그의 음악세계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보너스 트랙도 이 전집만의 매력! 프랑스만의 베토벤의 전통을 새롭게 쓰기 시작한 역사적인 베토벤 교향곡 전집으로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32 [DVD]

### 오랑주 고대극장의 정명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실황

정명훈(지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르타 아르헤리치 · 니콜라스 안겔리치(피아노)

**오랑주 고대극장의 정명훈과 라디오 프랑스 필, 아르헤리치와 안겔리치의 뜨거운 호흡!**
2015년 7월 10일 오랑주 고대극장 실황을 담은 영상물. 2000년부터 15년 동안 이뤄온 정명훈과 라디오 프랑스 필의 케미스트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국 태생의 니콜라스 안겔리치가 협연한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P.61, 생상 교향곡 3번 '오르간'이 메인으로 수록되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야외극장의 방벽을 음향판 삼아 환상의 울림을 선사하는가 하면, 야밤의 분위기와 지휘자의 표정을 환상적으로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은 116분의 시간을 청산유수로 흘려보낸다.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 선보인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와 비제 '카르멘'의 서곡은 깊어가는 밤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

**[보조자료]**

– 2015년 2월 서울시향을 객원지휘 한 핀란드 출신의 미코 프랑크가 음악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끈 이는 정명훈이다.

– 이 영상물은 2015년 6월에 말러 교향곡 5번으로 고별 무대를 가졌던 정명훈이 라디오 프랑스 필에 남긴 온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2015년 7월 10일 오랑주 고대극장 실황을 담은 영상은 총 116분 분량으로 벨에어와 오랑주, 라디오 프랑스와 메조TV가 합작한 것이다. 레퍼토리는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미국 태생의 니콜라스 안겔리치가 협연한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P.61, 생상 교향곡 3번 '오르간'이 메인으로 수록되었다.

– 프랑스 남부 오랑주, 고대 로마제국이 약 2000년 전 건설한 야외극장에서 펼쳐진 이 공연은 반원형 극장 무대 뒤편의 거대한 방벽을 천연 음향판 삼아 환상적인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방송국의 카메라 지원으로 인하여 밤을 수놓는 야외극장의 조명부터 오케스트라는 물론 지휘자의 표정까지 환상적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클래식음악의 초심자라 할지라도 지루함 없이 116분을 뚝딱 해치울 수 있다.

– 플랑크의 협주곡에서 아르헤리치와 안겔리치는 현대음악 특유의 실험성보다 현대음악으로 스며든 후기 낭만주의의 여운을 부드럽게 이끌어낸다. 두 사람의 호흡이 끝난 후, 정명훈은 피아니스트로 변신. 한 대의 피아노에 세 명의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 라흐마니노프의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를 선보여 관객을 환호케 한다. 정명훈의 필살기인 생상 '오르간'에서 오르간(크리스토프 앙리)과 함께 울려 퍼지는 3 · 4악장의 장엄함은 고대 극장 안에 잠들어 있는 전통과 숨결을 깨우는 듯 장엄하고 신비롭다. 그리고 비제 '카르멘'의 서곡이 앙코르로 울려 퍼질 때, 첼로를 한 바퀴 돌리는 단원들과 흥에 들뜬 관객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음악을 얼마나 즐기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커튼콜에서 단원들이 야광봉을 흔들 때는 올해로 1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최고(最古) 축제인 오랑주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을 보는 듯 하다. PCM 2.0, 돌비 디지털 5.1로 생생한 음향을 전달하며, 앞서 말한 대로 정명훈의 표정부터 극장을 샅샅이 휘젓는 카메라 워킹은 단연 최고급이다.

BelAir BAC127 [DVD]

### 니스 발레의 '파드되' & '수아 테 페테'

프랑스 니스 발레, 다비드 가르포드(지휘), 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뮤지컬 명배우 진 켈리, 파리 발레계를 풍미한 안무가 슈타츠의 역작을 한 눈에!**
뮤지컬 배우로 유명세를 날린 진 켈리가 안무한 '파드되',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전설적인 안무가 레오 슈타츠가 만든 '수아 테 페테'가 커플링 된 영상물이다. '파드되'는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을 바탕으로 안무한 작품이다. '수아 테 페테'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레오 슈타츠가 1925년에 만든 작품. 생전에 20여 개의 작품을 안무한 슈타츠는 클래식음악을 바탕으로 신고전주의적 방식의 역작을 내놓은 안무가이다. 따라서 이 하나의 영상물에는 20세기에 대중문화와 조우한 발레, 그리고 과거의 고전주의와 조우한 발레를 만날 수 있다. 39분 분량의 '파드되'와 30분 분량의 '수아 테 페테' 모두 프랑스 니스 발레단이 선보이며, 다비드 가르포드 지휘로 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보조자료]**

– 뮤지컬 배우로 유명세를 날린 진 켈리가 안무한 '파드되', 파리 오페라 발레의 전설적인 안무가 레오 슈타츠가 만든 '수아 테 페테'가 커플링 된 영상물이다. 파드되(pas de deux)란 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는 춤을, '수아 테 페테(Soir de fête)'란 축제의 밤을 뜻한다.

– 1940년대 초반, 진 켈리(1912~1996)의 할리우드 등장은 화려했다. 빈센트 미넬리 감독, 진 켈리와 레슬리 캐론의 뮤지컬 '파리의 미국인'은 2015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상 등 12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파리의 미국인'이 발레–뮤지컬이라면, '파드되'는 뮤지컬–발레로 속하며, 누군가는 브로드웨이 발레로 분류하기도 한다. 1960년대 파리 오페라 발레의 안무를 맞은 진 켈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얻었고,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전곡을 바탕으로 안무했다. 브로드웨이발레라는 말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 '수아 테 페테'는 1908년 파리 오페라 발레의 첫 발레 마스터가 된 레오 슈타츠(1877~1952)가 1925년에 만든 작품으로, 1908년부터 1936년까지 수많은 작품을 안무한 그의 전성기 시절의 작품이다.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레오 들리브(1836~1891)의 곡을 바탕으로 했다. 생전에 약 20개의 작품을 안무한 레오 슈타츠의 특징이라면 구노 · 랄로 · 생상 · 쿠프랭 · 스트라빈스키 · 쇼팽 등의 클래식음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과 한데 어우러지는 신고전주의적 안무 방식이다.

– 따라서 이 하나의 영상물에는 20세기에 대중문화와 조우한 발레, 그리고 과거의 고전주의와 조우한 발레를 만날 수 있다. 39분 분량의 '파드되'와 30분 분량의 '수아 테 페테' 모두 프랑스 니스 발레단이 선보이며, 다비드 가르포드 지휘로 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 보너스 트랙(12분 분량)에는 '파드되'를 구상하고 기본안무로 밑그림을 그린 클로드 베시(1945~1999)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베시는 파리 오페라 발레의 학교장을 역임한 전설적 인물이기도 하다. 자막은 영어, 부클릿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

BelAir BAC120 [2DVDs]

##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알비나 샤기무라토바(루드밀라), 미하일 페트렌코(루슬란), 유리 미넨코(라트미르), 알마스 스빌파(팔라프) 외/ 볼쇼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21세기 볼쇼이 오페라의 새로운 탄생의 순간**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인 리노베이션을 감행, 2011년 10월 기념비적인 오페라 하우스로 재탄생한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의 재개관 첫 프로덕션인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러 실황을 담은 역사적인 영상물. 화려한 옛 공국 시대의 화려한 의상들과 현대적인 조명의 조화, 1막의 흰색의 아름다운 키에프 궁전의 파티 장면, 2막 3장 체르노모르 동생의 머리가 영상으로 등장하는 스케일 큰 전쟁터의 기발한 장면과 음향, 성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재편한 4막의 무곡 장면, 마지막 5막의 화려한 피날레까지 체르니아코프의 상상력과 볼쇼이의 저력이 빛을 발한다.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의 문화저력을 새삼 절감할 수 있는 프로덕션으로서 반드시 소장해야 할 역사적인 영상물로 서슴없이 추천한다.

**HD/ PCM 2.0, DD 5.1/ NTSC/ 16:9/ 197MINS/ 자막: GB, FR, GE**

**[보조자료]**

– 그리스 신전의 외관을 닮은 볼쇼이 극장. 오랜 세월을 못이긴 탓에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와 차르 시대로의 복원, 그리고 더욱 럭셔리한 리노베이션을 감행, 2011년 10월 기념비적인 오페라 하우스로 재탄생한 바 있다. 이 당시 개관 기념 공연으로 많은 뉴 프로덕션이 올랐는데 그 가운데 11월 첫 번째 프로덕션으로 무대에 올라간 것이 바로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였다. 연출은 현재 러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최고의 연출가로 명성이 높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가 맡았고 지휘는 차세대 러시아 지휘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무대와 현대와 고전을 오가는 신선한 컨셉, 유라시아 대륙을 통틀어 이보다 더 훌륭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오페라 하우스는 없을지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 러시아를 대표하는 현역가수로 손꼽히는 미하일 페트렌코와 알비나 샤키무라토바를 비롯, 이 이상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캐스팅이 어우러지며 문화대국을 향한 러시아의 드높은 이상을 펼쳐낸다. 260kg의 화려한 샹들리에 밑에서 저 유명한 서곡이 연주된 뒤 새로 제작한 커튼이 열리며 키에프에서 열리는 축제 무대에 전 배역이 도열해 서서 함께 박수를 치는 것으로 오페라는 시작된다. 특히 로마노프 왕가의 상징인 쌍두독수리를 수놓은 루슬란의 의상을 통해, 차르의 휴게실과 로비까지 이전과 똑같이 복원한 이번 리노베이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재개관 첫 작품으로 러시아 오페라의 원류라고 말할 수 있는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를 선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의 21세기를 향한 야심찬 새로운 출발임을 깨달을 수 있다.

– 장면들을 보자면 1막의 흰색의 아름다운 키에프 궁전의 파티 장면, 2막 3장 체르노모르 동생의 머리가 영상으로 등장하는 스케일 큰 전쟁터의 기발한 장면과 음향, 3막의 지극히 여성 파자마 파티 같은 장면과 성적인 구도로 치환한 4막의 무곡 장면, 마지막 5막의 화려한 피날레까지 체르니아코프의 연출적 상상력은 빛을 발한다. 음악적으로는 하프와 피아노가 전통악기 구슬리를 모방하는 바이안의 칸틸레나 장면과 1막의 독특한 혼례의 합창, 루슬란과 체르노모르의 결투 장면과 루드밀라의 납치 장면 등등, 유로프스키의 탁월한 지휘가 오페라 곳곳을 반짝이게 만들며 러시아 고유의 서정과 정서를 부각시킨다. 러시아 오페라의 원류이자 그 현대적 재해석의 위대함을 만끽할 수 있는,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의 문화저력을 새삼 절감할 수 있는 프로덕션으로서 반드시 소장해야 할 역사적인 영상물로 서슴없이 추천한다.

BelAir BAC131 [DVD]
BelAir BAC431 [Blu-ray]

##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아나 살렌코(오로라), 마리안 발터(데지레), 사라 메스트로빅(라일락 요정) 외/ 베를린 슈타츠발레, 베를린 도이체 오퍼 오케스트라/ 로버트 라이머(지휘)

**장미 넝쿨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프로덕션**

2015년 9월 베를린 도이체 오퍼에서 프리미어를 가진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영상물. 작년 홍보용 스틸 컷이 공개되며 무대에 펼쳐진 환상적인 장미 넝쿨과 우거진 숲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무대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무대다. 베를린 슈타츠발레의 간판스타인 이아나 살렌코가 주역을 맡아 독보적인 라인의 예술과 극한의 테크닉을 펼쳐보인다. 여기에 수석 무용수인 마리안 발터의 건장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연기와 무용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무대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는 베를린 도이체발레의 진일보한 완성도를 HD급의 디테일하고 환상적인 화질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회심의 영상물이다.

**[보조자료]**

– 현재 세계의 대표적인 영상물 배급, 유통, 제작 업체들은 저마다 저명한 오페라 하우스와 발레 컴퍼니와 하나씩 계약하여 그 뉴 프로덕션을 지속적으로 영상물(DVD와 Blu-Ray)로 제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예술성과 화제성, 명성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프랑스의 Bel Air로서, 이들은 2006년 재개관한 러시아의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의 뉴 프로덕션을 발매하고 있는 동시에 프랑스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선별된 무대를 공급해왔다.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독일의 무대예술을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베를린 슈타츠발레의 영상물들이다. 특히 이아나 살렌코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탁월한 발레리나를 영입한 뒤 첫 작품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으로 숲속의 잠자는 미녀가 발매되었다. 스페인 출신의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나초 듀아토(Nacho Duato)의 무대로서 고전적인 구도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약간 현대적인 뉘앙스를 첨가한 신선함을 전달받을 수 있다.

– 특히 2막이 아름다운데, 데지레 왕자가 라일락 요정과 함께 공주를 찾아가는 장면과 더불어 공주가 잠들어 있는 곳의 환상적인 미장센은 무대라기보다는 가히 영화적인 느낌을 전달해준다. 무엇보다도 장미넝쿨의 연분홍색 색채와 푸른색으로 치장한 침대의 조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끔 할 정도다. 내용면에 있어서 듀아토는 2막 마지막을 온전히 오로라와 데지레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꾸며 몰입도를 높였고, 3막에서는 네 명의 보석들 가운데 황금을 남자 무용수로, 그리고 동화속 주인공들 장면에서는 난장이들의 춤을 삭제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마치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을 연상시키는 듯한 마녀 카바라보스는 의상과 카리스마가 흥미롭다. 이아나 살렌코의 기계적일 정도로 완벽한 동작들과 경이로운 균형감이 돋보이는 솔로, 여기에 세련미와 충중한 마스크를 지닌 마리안 발터와의 환상적인 파 드 되까지, 그녀의 출중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이 영상물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베를린 슈타츠발레 소속 모용수들이 펼치는 여섯 명의 요정들과 네 명의 보석들의 바리아시옹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BelAir BAC128 [2DVDs]
BelAir BAC428 [Blu-ray]

## 바그너: 파르지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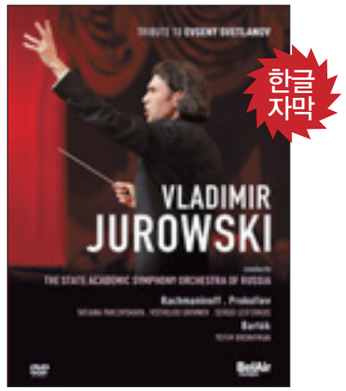
안드레아스 샤거(파르지팔), 르네 파페(구르네만츠), 아냐 캄페(쿤드리), 토마슈 토마손(클링조르), 볼프강 코흐(암포르타스)/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베를린 슈타츠오페른코어/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우리 시대의 감수성으로 환원된 바그너의 신성축제극**

2015년 4월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 베를린 슈타츠오퍼가 새롭게 제작한 뉴 프로덕션인 바그너 파르지팔이 드디어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특히 이 프로덕션이 화제를 모은 것은 천재적인 러시아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가 연출을 맡았기 때문으로서, 그는 파르지팔로부터 일말의 신성함을 말끔히 걷어내고 온전히 우리 시대의 리얼한 드라마로 완벽하게 환원시켰다. 르네 파페, 볼프강 코흐, 토마슈 토마손을 비롯한 세계 최고의 바그너 저음가수들이 총출동, 여기에 독일어권의 독보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인아냐 캄페, 새로운 헬덴테너로 각광받는 안드레아스 샤거가 파르지팔로 등장한다. 한편 현역 최고의 바그네리안 바렌보임의 지휘하에 SKB는 여전히 극강의 다이내믹과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천혜의 사운드를 뿜어낸다.

**[보조자료]**

– 2015년 4월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 베를린 슈타츠오퍼가 새롭게 제작한 뉴 프로덕션인 바그너 파르지팔이 드디어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특히 이 프로덕션이 화제를 모은 것은 천재적인 러시아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Dmitri Tcherniakov)가 연출을 맡았기 때문으로서, 그는 바이로이트로부터 링 4부작을 제안받고 조금 더 나중에 맡기로 했을 정도로 바그너 연출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왔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드높은 명성에 비하여 바그너 연출은 마린스키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정도만을 제작했을 정도인데, 그러던 차에 쉴러 극장에서의 파르지팔 연출을 맡으며 이목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그는 파르지팔로부터 일말의 신성함을 말끔히 걷어내고 온전히 우리 시대의 리얼한 드라마로 완벽하게 환원시켰다. 무대는 어느 산맥에 위치한 낡은 건물로서 성배기사단을 일종의 비밀조직의 아지트로 설정했다. 여기서 구르네만츠는 기사들에게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성배와 성창, 클링조르를 둘러싼 조직의 과거와 현재를 가르쳐준다. 말쑥한 도시적인 외모를 갖춘 쿤드리와 산악여행장비를 둘러맨 채 백조를 활로 쏜 파르지팔이 등장, 드라마적인 외부요소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체르니아코프는 특히 2막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수많은 상징들을 드라마적인 동기로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클링조르는 요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집증적이며 장난끼 많으며 유아적인 악인으로 설정, 지하조직의 음습함과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쿤드리의 장면에서 연기자들이 등장, 마마보이로 자라던 파르지팔이 여자친구와 성적인 장난을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뒤 가출,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 설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쿤드리는 파르지팔을 침대 위로 끌어올리는데, 바로 이 순간 파르지팔이 동정과 신성함에 대한 각성을 이루게 된다. 체르니아코프의 천재적인 극작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3막의 결말 또한 드라마적인 반전으로서, 조직을 와해시킨 장본인인 쿤드리가 옛사랑인 암포르타스와 뜨거운 입맞춤을 하는 순간 뒤에서 칼로 찔러 복수를 하며 끝을 맺는다. **음악 또한 최강이다. 파페의 권위적인 구르네만츠와 코흐의 불 같은 암포르타스, 성악적 표현과 연기력 모두 극강의 수준을 보여주는 캄페의 쿤드리 등등 모두 최상급이고, 어리숙한 연기와 완벽한 사운드를 구사하는 샤거의 파르지팔도 일품이다. 물론 바렌보임과 SKB의 성스러우면서도 자극적이고 다이내믹하면서도 고요하며 끊기지 않는 다채로움과 정화의 수준에 다다른 음향의 엑스타시는 바그너 음악의 가장 높은 경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화질과 사운드 모두 최상의 퀄리티.**




BelAir BAC107 [DVD]

##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트리뷰트 콘서트 [합창곡: 한글자막]
## TRIBUTE TO EVGENY SVETLANOV

타티아나 바플로프스카야, 브세보로드 그리브노프,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 예핌 브론프만(피아노)/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차이콥스키 콘서바토리 볼쇼이 홀에서 공연되어 최초 영상물로 소개되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종'을 비롯하여 절대 놓칠 수 없는 HD급 스펙타클한 공연 !!**

**스베틀라노프의 탄생 85주년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콘서트**

2002년 세상을 떠난 스베틀라노프의 탄생 85주년을 기리기 위한 콘서트로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op.35 '종'과 버르톡 피아노 협주곡 3번, 프로코피예프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합창곡인 두 개의 시편 Op.7 및 칸타타 일곱 명의 악마 Op.30이 수록 되어 있다. 특히 '종'은 영상물로는 처음 발매되는 라흐마니노프의 걸작으로서 탄생과 사랑, 공포와 죽음에 대한 대서사시가 주로프스키의 탁월한 지휘로 스펙타클하게 펼쳐진다. HD급 화질로는 처음 공개되는,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차이콥스키 콘서바토리 볼쇼이 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영상도 몹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탁월한 어쿠스틱이 마이크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시청각적인 퀄리티를 한껏 높인다. 무엇보다도 합창곡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되어 작품의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또한 가능하다.

**[보조자료]**

– 2013년 9월 6일 러시아의 전설적인 지휘자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Yevgeny Svetlanov, 1928~2002)의 탄생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주회가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콘서바토리 볼쇼이 홀에서 열렸다. 악단은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The State Academic Symphony Orchestra "Evgeny Svetlanov"), 지휘는 2011년부터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블라디미르 주로프스키(Vladimir Jurowski, b.1972). 1936년 USSR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USSR State Symphony Orchestra)라는 이름으로 창단된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알렉산더 가우크와 콘스탄틴 이바노프와 같은 러시아의 명지휘자들을 거치며 단순간에 모스크바 최고의 악단으로 부상했고, 1965년 스베틀라노프가 상임 지휘자로 부임한 뒤 2000년 해외공연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해임되기까지 35년동안 악단을 이끌며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러시아 오케스트라로 키워놓았다. 악단의 이름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1991년에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2005년 스베틀라노프의 공적을 기리며 악단 이름 뒤에 그의 이름을 넣게 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바실리 시나이스키와 마르크 고렌스타인을 거쳐 투간 소키에프와 테오도르 쿠렌치스와 더불어 21세기 러시아의 젊은 지휘자의 삼룡(三龍)으로 손꼽히는 블라디미르 주로프스키가 상임으로 발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바로 이 날은 2002년 세상을 떠난 스베틀라노프를 기리기 위한 트리뷰트 콘서트로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op.35 '종'과 버르톡 피아노 협주곡 3번, 프로코피예프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합창곡인 여성 합창을 위한 두 개의 시편 Op.7 및 테너와 합창을 위한 칸타타 일곱 개의 죄악 Op.30이 수록되어 있다. '종'은 1913년 로마에서 작곡 1914년 모스크바에서 초연된 3인의 독창자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으로서 에드가 포우의 같은 제목의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4악장 형식이다. 탄생과 결혼, 공포와 죽음을 은종, 황금종, 동종, 철종으로 상응하여 배치된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자신의 가장 멋진 작품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걸작이다. 주로프스키의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에 의해 스펙타클하게 펼쳐지는 '종' 다음에는 버르톡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프로코피에프의 합창곡이 이어지며 스베틀라노프의 탄생일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다. **HD급 화질로는 처음 공개되는,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차이콥스키 콘서바토리 볼쇼이 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영상도 몹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특유의 청명하고 유려하며 디테일한 어쿠스틱이 마이크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시청각적인 퀄리티를 한껏 높인다. BelAir 프로덕션의 야심작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귀중한 영상물로서 한글자막이 제공되어 작품의 텍스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또한 가능하다.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

##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3508 [DVD]
C Major 733604 [Blu-ray]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2번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빈 필하모니커/ 주빈 메타(지휘)

**마지막 빈 고전주의자들의 위대한 만남**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이자 빈 고전주의 피아니즘의 마지막 수호자로 추앙받는 루돌프 부흐빈더.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50년 넘게 헌신한 빈의 무지크페라인잘에서 자신의 수족과 같은 빈 필하모니커와 함께 드디어 브람스 피아노 협주고 전곡을 영상물로 촬영했다. 지휘자는 역시 빈 필하모니커의 영원한 친구이자 빈 고전음악 전통의 위대한 계승자인 주빈 메타.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매칭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빈스러울 수 없고 음악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2015년 3월 초 진행된 사이클로서 당시 오스트리아 언론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던 그 감동을 바로 이 영상물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다.

**[보조자료]**

– "브람스의 사운드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빈의 일간지인 쿠리에(Kurier)는 2015년 3월 초 무지크페라인에서 열렸던 루돌프 부흐빈더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치클루스에 대해 이렇게 평을 내렸다. 경이로운 피아노 비르투오소이자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빈 고전주의 피아니즘의 마지막 수호자로 추앙받는 루돌프 부흐빈더. 그가 피아니스트로서 50년 넘게 헌신해온 저 신성한 빈의 무지크페라인잘에서 자신의 수족과 같은 빈 필하모니커와 함께 드디어 당시에 진행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영상물로 촬영한 것이다. 니콜라스 하르논쿠어트/로열 콘세트르허바우 오케스트라와의 Teldec 레코딩과 주빈 메타/이스라엘 필하모닉과의 HELICON CLASSICS 레코딩에 이은 세 번째 녹음으로서, 다시 한 번 주빈 메타와 호흡을 함께 하며 21세기적인 HD급 영상으로 녹화되었다. 앵글을 따라가노라면 황금빛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의 아름다움과 청중의 뜨거운 몰입감을 바탕으로, 빈 필의 비할 바 없는 윤택함 및 눈부신 음색, 부흐빈더의 첨예한 연주와 메타의 예사롭지 않은 비팅이 가세하며 온몸으로 브람스 음악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 이전 부흐빈더가 직접 빈 필을 지휘하며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부흐빈더의 극도로 상기된 연주력과 초인적인 집중력,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음악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과 빈 특유의 정서를 불어넣는 메타의 거장성은 다시 한 번 2015년 3월의 빈을 벨 에포크 시대로 되돌리는 듯한 마력을 발산한다. 더불어 이보다 더 완벽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음향은 오직 무지크페라인과 빈 필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로 이 영상물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C Major 737208 [2DVDs]
C Major 737304 [Blu-ray]

### 벨리니: 노르마

그레고리 쿤드(폴리오네), 레이몬드 아세토(오로베소), 손드라 라드바노프스키(노르마), 에카테리나 구바노바(아달지사), 아나 푸체(클로틸데), 프란시스코 바스(플라비오) 레나토 팔룸보(지휘), 케빈 뉴베리(연출), 리세우 대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 합창단

**"이태리 벨칸토 오페라의 최고봉!" – 리세우 대극장, 2015년 바르셀로나**

170년 역사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에서 가장 자주 막을 올렸던, 이태리 낭만주의 오페라의 정점을 찍은 벨리니 최고의 벨칸토 오페라 〈노르마〉.

***"이 오페라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 리하르트 바그너*

***"그래미상 후보이자 2010년 아이리쉬타임즈의 연출가상을 받았던 케빈 뉴베리가 연출한 손드라 라드바노프스키의 노르마는 절대적인 힘과 우아함을 겸비하고 있다."***
*– 뉴욕타임즈*

***"스핀토 소프라노 손드라 라드바노프스키와 폴로오네 역의 테너 그레고리 쿤드의 퍼포먼스는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특별한 감동을 준다."*** *– 오페라트레블러*

**[보조자료]**

– 19세기 이태리 오페라에 최적의 경력을 쌓은 미국 출신의 스핀토 소프라노 손드라 라드바노프스키. 그녀는 2011/12 시즌 스페인 오비에도의 캄포아모레 극장에서 노르마 역을 처음으로 맡았던 것을 필두로 2013/14 시즌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그리고 2014/15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3번째로 노르마 역을 맡았다.

– 본 영상물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연출 그대로 2015년 2월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에서 공연한 작품이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2010년 아이리쉬타임즈의 연출가상을 받았던 케빈 뉴베리는 초연 오페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진 연출가이다. 20편 이상을 초연했던 뉴베리의 신선한 시각은, 오페라 노르마가 가지는 대결구도, 즉 갈리아(오늘날의 서유럽)와 로마의 대립 그리고 폴리오네에 대한 노르마의 복수라는 전통적인 대결구도 이외에 여사제 노르마의 신성한 제사 의식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갈리아, 영국, 아일랜드 땅에 살았던 켈틱족 중에서 상류층을 일컫는 드루이드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드루이드인들을 이끄는 여사제 노르마의 손에 쥐어진 미즐토 나무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이다. 무대 중앙에 대형 미즐토를 매단 무대 디자인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면서 노르마의 아리아 "정결한 여신(Casta Diva)"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이다. 손드라 라드바노프스키의 노르마는 오페라사에 가히 전설적인 캐스팅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C Major 736908 [DVD]
C Major 737004 [Blu-ray]

## 이탈리아 레지오 극장의 베르디 '아이다'

잔안드레아 노세다(지휘), 레이오 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윌리엄 프레드킨(연출)
크리스틴 루이스(아이다), 암네리스(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 마르코 베르티(라다메스), 심인성(이집트 왕)

**그녀는 마치 아이다 역을 위해 태어난 소프라노 같다**

이탈리아 레지오 극장이 2015년 10월에 선보인 베르디 '아이다'의 실황 영상물이다. 미국 출신의 흑인 소프라노 크리스틴 루이스는 마치 아이다 역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완벽한 노래와 연기를 펼친다. 암네리스 역의 하르벨리쉬빌리도 질투의 불꽃을 후끈히 피어올린다. 아이다와 라다메스(마르코 베르티)의 '사랑'보다, 아이다와 암네리스가 펼치는 노래의 '맞대결'을 원한다면 이 영상물이 제격이다. 1080i 해상도와 극장 환경을 고스란히 재연하는 듯한 오디오 컨디션은 프레드킨이 연출한 황금빛 무대를 돋보이게 하고, 성악가들의 소리를 솔직하고 생생히 그려낸다.

**[보조자료]**

–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에 위치한 레지오 극장에 2015년 10월에 오른 '아이다'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실험적이고 독특한 연출보다는 성악가들의 화려한 사운드에 흠뻑 빠져들고 싶은 이에게 추천하고 싶다.

– 아이다는 고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온 에티오피아의 공주로, 신분을 숨긴 채 이집트 공주인 암네리스의 몸종으로 살고 있다. 암네리스는 이집트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된 라다메스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라다메스는 아디아와 몰래 사랑하고 있는 사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분노에 휩싸여 가혹한 벌을 내리는 내용이다.

– 2015년 주빈 메타의 지휘로 라 스칼라 극장에서 '아이다'의 타이틀 롤을 거머쥐었던 미국 출신의 흑인 소프라노 크리스틴 루이스는 리리코 스핀토답게 열정적이며 날이 바짝 선 목소리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여기에, 암네리스 역을 맡은 메조소프라노 아니타 라흐벨리쉬빌리는 유명 프로덕션의 '카르멘' 타이틀 롤로 익힌 감각적인 목소리와 연기로 크리스틴 루이스와 긴장이 팽팽한 쌍곡선을 그린다.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사이로 라다메스 역의 테너 마르코 베르티 역시 극적이면서도 힘 있는 음성을 자랑한다. 이집트 왕 역의 베이스 심인성도 눈길을 끈다. 빈 슈타츠오퍼에서 7년간 전속가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2015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소프라노 임세경과 함께 같은 역할을 선보여 이 역이 그만의 전매특허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

–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후, 첫 정규음반 녹음을 같이 한 이탈리아 출신의 잔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를 맡았다. 영화감독이기도 한 윌리엄 프레드킨의 연출은 이집트 특유의 황금빛과 문양 등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실험적인 해석보다는 원전에 충실한 사실주의적 무대를 느끼게 한다.

– 148분 분량. 1080i 해상도의 화질과 PCM STEREO와 DTS-HD MA 5.1의 오디오 옵션은 무대 위의 황금색을 돋보이게 하고, 성악가들의 소리를 솔직하고 생생히 그려낸다.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를 갖췄다.

# Dynamic

www.dynamic.com

Dynamic 37751 [2DVDs]

## 마스네: 마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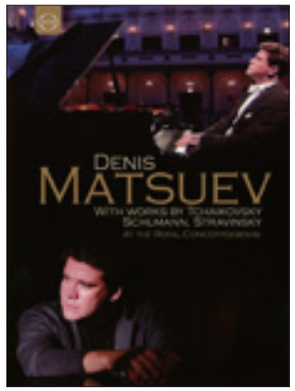
안닉 마시스(마농 레스코), 알레산드로 리베라토레(데 그뤼), 피에르 도옌(레스코) 외/
리에쥬 왈롱 로열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패트릭 다빈(지휘)

**리에쥬에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의 마농**

최근 꾸준하게 발매되어 온 리에쥬 왈롱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프로덕션들은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의상과 원색적인 무대가 특징인 것 같은데,
이번에 선보인 마스네의 마농 또한 시각적인 향연이 일품이다.
스테파노 마조니스 디 프라라페라의 연출로서 고전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감수성과 화려한 미장센으로 극을 보다 리얼하고 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
특히 마농역을 맡은 안닉 마시스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마농이 눈길을 끈다.
네트렙코만큼 관능적이지는 않지만, 도시지향적 여성의 취향과 섬세한 감정변화를
확연하게 드러낸다. 한편 데 그뤼역의 리베라토레는 벨칸토적인 음색과
빼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캐릭터를 온전하게 소화해 극에 생명력을 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 패트릭 다빈의 지휘 또한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로서의
우아함과 다이내믹한 진행을 훌륭하게 이끌어낸다.

##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3075408 **[DVD]**

** 피아노 매니아라면 꼭 소장해야 할 추천 DVD **

###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에서의 데니스 마추예프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러시아의 거인, 마추예프의 첫 리사이틀 영상**

건반 위의 거인으로 불리며 21세기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니스 마추예프. 그는 장신의 거구답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압도적인 위압감과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테크닉, 인간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스피드와 지구력, 다이내믹을 구사하는 괴물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성에 비하여 영상물은 거의 없었는데, 이 2015년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에서의 솔로 리사이틀 실황을 처음으로 발매하며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슈만의 크라이슐레리아나,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등의 메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리아도프의 뮤직 스너프박스, 차이콥스키의 메디테이션,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Op.8 No.12, 자작곡인 재즈 즉흥곡으로 이어지는 앙코르까지 피아노 연주의 신세계를 보여준다.

**[보조자료]**

– 건반 위의 거인으로 불리며 21세기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니스 마추예프. 그는 장신의 거구답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압도적인 위압감과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테크닉, 인간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구사하며 러시아 레퍼토리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영광의 금자탑을 쌓아가고 있다. 그가 게르기예프와 협연을 할 때 보여준 신기막측한 스케일과 총알만큼 빠른 스피드, 그 안에서도 강건한 구조와 디테일한 표현력, 여기에 피아노 현이 끊어지는 듯 천둥처럼 쏟아지는 막강한 포르티시시시모와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러시아적인 터치 등등, 러시아 협주곡들에 있어서 그는 음악의 청각적 이해를 넘어서는 육체의 전율적인 경험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성에 비하여 영상물은 거의 없었는데, 이 2015년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에서의 솔로 리사이틀 실황을 처음으로 발매하며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 차이콥스키의 사계, 슈만의 크라이슐레리아나,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로 이어진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는 자신만의 서정성과 독자적인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해석가로서의 면모를 한껏 발산한다. 특히 페트루슈카의 엄청난 다이내믹과 날카로운 리듬, 너무나 러시아적인 색채와 비장미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듣노라면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가운데 이 작품을 마추예프만큼 스펙타클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이후 앙코르에서도 그의 매력발산은 멈추지 않는다. 진정한 피아노의 거장만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리아도프의 뮤지컬 스너프박스를 비롯하여 차이콥스키의 메디테이션, 호로비츠의 연주 이후 가장 충격적인 연주력이 빛을 발하는 스크리아빈의 연습곡 Op.8 No.12 등등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마추예프의 장기이기도 한 재즈 즉흥곡이 펼쳐진다. 강렬한 에너지와 화려한 테크닉,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즉흥곡이 끝난 뒤 무대 위에는 십자포화가 쏟아진 듯한 자욱한 포연이 흘러나오며 청중을 황홀경에 이르게끔 한다. 피아노 매니아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하는 음반으로서 화질과 음질 모두 완벽에 가깝다!

ideale audience 3075528 **[DVD]**

### 2014년 앙시 클래식 페스티벌

데니스 마추예프(피아노)/ 상트 삐쩨르부르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졸탄 코치쉬, 유리 테미르카노프(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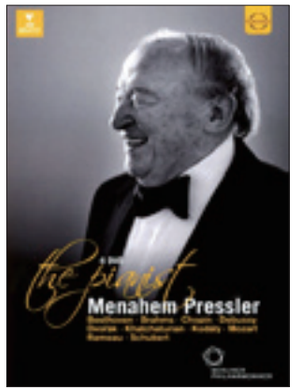
**앙시 페스티벌에서 펼쳐진 화려한 러시아의 밤**

2014년 8월 프랑스 앙시에서 열린 클래식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DVD로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데를 수록한 2013년 영상물에 이은 두 번째 영상물 발매다. 이번에도 역시 음악감독인 데니스 마추예프와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상트 삐쩨르부르그 필하모닉의 협연 및 콘서트 레퍼토리가 담겨 있는데,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죽음의 무도에서는 졸탄 코치쉬가 지휘를,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연주하여 다채로움을 더한다. 무엇보다도 리스트의 두 개의 협주곡에서 마추예프가 보여준 아크로바틱처럼 기계적이고 악마적인 동시에 전지전능한 연주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상트 삐쩨르부르크 필의 환상적인 사운드와 귀족적인 에너지감을 발산하는 전람회의 그림 또한 전율적으로서 이 명예로운 악단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보조자료]**

– 2014년 8월 프랑스 앙시에서 열린 클래식 페스티벌 실황을 담은 DVD로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데를 수록한 2013년 영상물에 이은 두 번째 영상물 발매다. 앙시 클래식 페스티벌은 프랑스의 여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일리안느 리샤팽(Éliane Richepin, 1910~1999)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된 축제로서 1997년 파스칼 에스칸드 회장이 규모와 재원을 확장하며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여름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로 성장시켰다. 특히 피아니스트인 데니스 마추예프를 음악감독으로 영입하며 더욱 국제적인 명성과 수준 높은 음악적 수준을 갖추게 되었는데, 유리 테미르카노프와 발레리 게르기예프, 니콜라이 루간스키, 를 비롯한 러시아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하며 러시아 음악에 특별한 강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맞추예프와 상뜨 삐쩨르부르그 필하모닉의 협연은 항상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영상물이 제작된 2014년에는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죽음의 무도를 연주하여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 졸탄 코치쉬의 지휘 하에 마추예프는 아크로바틱처럼 기계적이고 악마적인 동시에 전지전능한 연주력을 보여주는데, 과연 인간으로서 이런 초인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모든 디테일과 표현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슈퍼맨을 능가하는 힘과 속도, 다이내믹을 구사하는 마추예프. 특히 죽음의 무도에서 펼쳐내는 그 무시무시한 아르페지오와 전율적인 화음은 오직 이 영상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장면이다. 앙코르로 연주한 쉬체드린의 솔로 피아노를 위한 '엘리지'는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영롱함과 깨질 듯한 아름다움이 압권이다. 한편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상트 삐쩨르부르크 필을 지휘한 '전람회의 그림'은 악단의 환상적인 사운드와 귀족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는 명연으로서, 이 명예롭고 골동스러운 악단의 음악적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화면앵글과 다채로운 포커스, 수준 높은 화질이 음악적인 만족도만큼이나 훌륭하다.




EuroArts 2061618 [4DVDs]

## 머나햄 프레슬러

머나햄 프레슬러(피아노)/ 베를린 필하모니, 파리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 파보 예르비(지휘) 외

**머나햄 프레슬러의 기념비적인 영상물 전집**

1923년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정착한 피아니스트 머나햄 프레슬러(Menahem Pressler). 그는 전설적인 보자르 트리오를 창단한 리더로서 50여년을 활동하다가 2008년 해체한 뒤 80의 나이로 솔로 피아니스트로서의 캐리어를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음악영웅이다. 이 넉 장의 DVD에는 지금까지 발매된 그의 영상물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2014년 1월 베를린 필하모닉의 데뷔 연주회인 신년 음악회 실황(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488), 2014년 파리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모차르트 K.488과 K595), 2011년 파리 시테 드 라 무지크에서의 솔로 리사이틀, 2013년 살르 프레옐에서의 90세 생일 기념 연주회로서 프레가르디엔과 에벤 4중주단과의 드보르작 5중주와 슈베르트 가곡 등등이 수록되어 있다.

**NTSC/ 16:9/ PCM Stereo, DD5.0, DTS5.0/ 다큐멘터리 자막: GB, DE, FR/ 135(DVD1)+95(DVD2)+88(DVD3)+116(DVD4) MINS**

[DVD 1]

**NEW YEAR'S EVE CONCERT 2014 & THE LIFE I LOVE**

The pianist Menahem Pressler: Menahem Pressler is the oldest active concert pianist in the world, and made his début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in January 2014 at the age of 90, the piece chosen for the New Year's Eve was Mozarts Piano Concerto No. 23, one of the pianists favorite works.

[DVD 2]

**Menahem Pressler · Paavo Järvi · Orchestre de Paris:**

On the occasion of his 90th Birthday he celebrated with Paavo Järvi and the Orchestre de Paris at Salle Pleyel in Paris, performing Mozarts Piano Concertos No. 23 and 27 as well as Debussy's Clair.

[DVD 3]

**Menahem Pressler in Recital at Cité de la musique, Paris:**

During this recital filmed at Paris' Cité de la Musique 2011, Menahem Pressler plays two of the most imposing works in the piano repertoire: Beethoven's penultimate sonata and Schubert's last sonata which both require unusual emotional involvement from the performer.

[DVD 4]

**Menahem Pressler – A 90th Birthday Celebration:**

The Quatuor Ebène was invited by legendary pianist Menahem Pressler to join him in celebrating his 90th birthday in November 2013. The program included two of the most life-affirming works in the chamber repertoire, Dvorak's Piano Quintet, Schubert's 'Trout' Quintet and 4 songs of Schubert's Winterreise

EuroArts 2061498 [DVD]
EuroArts 2061494 [Blu-ray]

## 2016년 발트뷔네 콘서트 – 체코의 밤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리사 바티아쉬빌리(바이올린)/ 야닉 네제-세갱(지휘)

**발트뷔네에서 펼쳐진 체코의 밤**

베를리너 필하모니커가 매년 발트뷔네에서 개최하는 여름 야외 음악회가 2016년에도 개최되었다. 지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야닉 네제-세갱. 그의 감각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지휘를 통해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가운데 몰다우강을 시작으로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과 슬라브 무곡 8번, 그리고 최근 남다른 카리스마와 빼어난 음악성으로 유수 오케스트라와 거장급 지휘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와의 협연으로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HD 화질과 음질 모두 최상급이고 지휘자를 향한 카메라 앵글이 상단에 등장하는 버전이 따로 수록되어 있어 취향에 따라 발트뷔네의 밤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다.

**[보조자료]**

– 베를리너 필하모니커는 1984년부터 매년 여름 베를린 외곽에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인 발트뷔네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주제를 내걸고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현재 음악감독인 사이먼 래틀이 '조명, 카메라, 액션!'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영화와 관련된 음악들을 선보인 반면, 2016년 여름에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음악감독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젊은 캐나다 지휘자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봉을 맡아 '체코의 밤'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발트뷔네에서는 오랜 만에 만날 수 있는 본격 콘서트용 프로그램인 만큼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를 감상하는 청중도 여느 때보다 진지한 것이 특징.

– 네제-세갱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체코 음악만을 연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체코 출신의 지휘자들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유려하며 정력적인 연주를 들려주어 이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감수성을 발휘한 듯 몰다우강에서 쏟아내는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물결과 환희의 숨결은 베를린 시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 드보르작 교향곡 6번의 그 토속적인 리듬과 보헤미아의 자연을 머금은 듯한 음향 또한 무척이나 감동적이다. 최근 남다른 카리스마와 빼어난 음악성으로 유수 오케스트라와 거장급 지휘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1979년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 태어난 여류 바이올리니스트 리사 바티아쉬빌리와의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 날의 하이라이트. 농밀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대범한 스케일과 섬세한 디테일 조탁을 통해 바티아쉬빌리는 그 어떤 음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흥을 자아낸다. 이보다 더 신나고 드라마틱한 슬라브 무곡은 없을 정도로 몰아부친 네제-세갱은 마지막으로 이 발트뷔네의 공식 앙코르인 파울 링케의 '베를린의 하늘'을 연주한다. 청중과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에서 베를리너 필하모니커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이기에 앞서 베를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케스트라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다.

EuroArts 2061488 [DVD]
EuroArts 2061484 [Blu-ray]

## Europa Konzert 2016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빌데 프랑(바이올린)/ 사이먼 래틀(지휘)

**노르웨이의 풍광을 찾아가다, 2016 유로파 콘체르트**

베를리너 필하모니커가 그들의 창립기념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유럽의 유명 도시들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갖는 유로파 콘체르트 시리즈를 매년 실행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에는 노르웨이의 쇠르트뢴델라그주에 위치한 뢰로스를 방문하여 1784년에 건축된 루터교 뢰로스 교구의 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교회에서 신예 바이올리니스트인 빌데 프랑(Vilde Frang)와 함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를 비롯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그리고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산에서의 저녁 Op.88/4와 프랑의 앙코르곡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브루스타드(Bjarne Brustad, 1895~1978)의 짧은 민요풍의 소품인 Veslefrikk를 연주한다.

**[보조자료]**

– 베를리너 필하모니커가 그들의 창립기념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고자 유럽의 유명 도시들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갖는 유로파 콘체르트 시리즈를 매년 실행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에는 노르웨이의 쇠르트뢴델라그주에 위치한 뢰로스를 방문하여 1784년에 건축된 루터교 뢰로스 교구의 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의 교회에서 신예 바이올리니스트인 빌데 프랑(Vilde Frang)과 함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E장조를 비롯하여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그리고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산에서의 저녁 Op.88/4와 프랑의 앙코르곡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브루스타드(Bjarne Brustad, 1895~1978)의 짧은 민요풍의 소품인 Veslefrikk를 연주한다.

– 빌데 프랑(Vilde Frang, b.1986):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난 빌데 프랑은 네 살 때부터 스즈키 메소드 교육을 받으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 오슬로의 바라트 두에 뮤직 인스티튜트에서 스테판 바라트–두에, 알프 리하르트 그라게루드, 헨닝 크라게루드 등을 사사한 뒤 10세의 나이로 노르웨이 라디오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며 데뷔무대를 가졌다. 1998년 안네–조피 무터에게 소개된 뒤 곧바로 안네–조피 무터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빌데 프랑은 1999년 12세의 나이로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틀와 협연을 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다. 워너 클래식스 레이블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협연과 앙상블을 이룰 만큼 성장한 빌데 프랑은 1864년산 정–밥티스테 빌료메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다.

– 뢰로스 교회 (Røros Church): 1784년에 건축된 노르웨이 루터교(Lutheran) 뢰로스 교구의 교회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뢰로스 광산마을(Røros Mining Town)의 중심부에 있다. 노르웨이에서 세워진 최초의 루터파 교회이며, 다섯번째로 큰 교회이다. 1650년 바로크 건축양식으로 지은 작은 목조건물로 지어졌다가 18세기 초반에 파손되었으며, 1784년 8월 15일 마르쿠스 F. 방(Marcus Fredrik Bang) 주교에 의해 이전의 교회 뒷편에 1640석 규모의 석조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대대적인 보수 및 복원 공사가 있었다. 노르웨이어로 '아름다운 광산마을'이라는 뜻의 베르그스타덴 지르(Bergstadens Ziir)라고도 불린다. 교회는 1644년 구리 광맥이 발견된 이후 300년이 넘도록 번성했던 뢰로스 광산마을 노동자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다. 탄광마을 중심부의 언덕위에 있고, 교회 건물에 높이 솟은 하얀 종탑에는 구리로 만든 십자(十字)로 교차된 망치가 장식되어 있다. 교회 입구에는 옛 노르웨이어로 '신에게 영광 그리고 아름다운 광산마을(To God's Glory and Bergstaden's beauty)'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교회 뒤편의 뢰로스 교회 묘지에는 구리광산의 광부들이 묻혀있으며, 광산 노동자들의 삶을 소설로 생생하게 그려냈던 뢰로스 태생의 소설가 요한 팔크베르게(Johan P. Falkberget, 1879~1967)의 묘지가 있다.

EuroArts 2061628 [DVD]
EuroArts 2061624 [Blu-ray]

##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마타하리'

테드 브랜드선(예술감독 · 안무), 타릭 오레건(음악), 안나 치간코바(마타하리), 최영규(시바 신)

**세밀한 안무의 발레로 그려낸 비극적 여인의 인생**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춤으로 20세기 초반 벨 에포크 시대의 파리와 유럽을 사로잡은 전설의 무희 마타 하리.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중 이중스파이 혐의로 총성과 함께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발레강국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 테드 브랜드선이 안무와 연출을 맡아 마타 하리의 인생을 그려냈고, 수석무용수 안나 치간코바가 그녀의 인생을 춤으로 그려낸다. 2016년, 한국에 상륙한 마타 하리의 뮤지컬과 소설 열풍과 달리, 발레 속의 마타 하리를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보조자료]**

– 2016년, 뮤지컬 '마타 하리'가 상륙하면서 국내에 '마타 하리 열풍'이 불었다. 우리에게 소설 '연금술사'로 잘 알려져 있는 파올로 코엘료가 마타 하리의 삶을 소설화한 '스파이'도 인기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유로아츠에서 내놓은 발레 '마타 하리' DVD, Blu-ray 가 최근 입고되었다.

– 마타 하리(1876~1917)는 실존 인물로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불안하기 짝이 없던 유럽 사교계를 뒤흔든 팜므 파탈의 상징과도 같은 여인이다. 스트립쇼 댄서로 출발해 당대의 각국 유력인사들과 염문을 뿌리다 결국은 이중첩자로 몰려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 마타 하리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있는 이 프로덕션은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의 예술감독이자 상주안무가인 테드 브랜드선의 신작으로, 아르모니아 문디를 통해 활발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작곡가 타릭 오레건 특유의 신비로운 음악이 더해졌다.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은 김지영이 몸담았던 곳으로, 현재는 최영규가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 1막이 스트립 댄서로 이름을 날리는 마타 하리의 화려한 인생과 웃음을 담고 있다면, 2막은 유력인사들과의 교분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그녀의 고뇌를 담았다. 마타 하리 역은 2007년 입단 후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나 치간코바가 맡았다. 특히, 5장 '파리의 마타 하리'에서 보여주는 마타 하리의 관능적이고 농염한 춤에서 그녀의 섬세한 몸짓과 표정 연기가 빛을 발한다. 마타 하리는 개인적 비극을 겪은 뒤 인도 갠지스강가 시바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신성한 춤을 배우는데, 시바 신 역할은 수석무용수 최영규가 맡았다.

– 이 작품은 마타하리의 삶을 뮤지컬보다 더 실감나고, 소설보다 더 생생하고 꼼꼼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실비아 크리스텔이 출연한 영화 '마타 하리'(1985)를 보며 '나만의 마타 하리'를 꿈꾸었던 이들에게, 혹은 마타 하리를 콘텐츠로 한 홍수 속에서 좀 색다른 작품을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픈 발레 작품이다.

EuroArts 2072938 [DVD]

## 2016년 오스트리아 그라페넥 한여름 밤의 갈라

올가 페레티아트코(소프라노), 브라이언 터펠(바리톤),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유타카 사도(지휘),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

**여름밤의 낭만과 시원한 음악들이 어우러진 향연**

오스트리아 그라페넥의 자연과 어우러진 현대식 공연장에 저녁의 시간이 내려앉자, 화려한 음악회가 펼쳐진다. 올가 페레티아트코와 브라이언 터펠이 선사하는 구노, 비제, 베르디, 도니제티, 오펜바흐, 레하르의 오페라 아리아와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선율이 90분의 향연을 물들인다. 유타카 사도의 지휘와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자연과 음악이 마주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청량감을 제공한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펼쳐질 때, 당신은 내년 휴가지로 오스트리아를 단번에 선택할지도 모른다!

**[보조자료]**

– 그라페넥 성에 마련된 현대식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 한여름 밤의 갈라 콘서트를 담은 영상물이다.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달리면 과거 라티보르 공작의 저택이었던 그라페넥 성에 도착한다. 2007년부터 이곳에선 국제적인 수준의 그라페넥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다. 성의 정원에다 현대식 건축공법으로 만든 지붕을 씌워 '구름탑(Wolkenturm)'이라 불리는 야외무대가 이 페스티벌의 주무대. 독특한 형태의 지붕은 고풍스런 성채와 대비를 이루는 초현대적인 야외조형물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 페스티벌 전속악단인 톤퀴스틀러 오케스트라와 상임지휘자 유타카 사도가 지휘봉을 잡았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올가 페레티아트코와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이 구노의 오페라 아리아로 초입을 달구고 비제, 베버의 오페라 아리아를 이어간다. 경쾌한 음악 중간마다 관객석과 풀밭에 편안한 자세로 관람하는 관객들의 모습은 이 영상에 입체감을 더한다. 루돌프 부흐빈더와 함께 하는 베버의 콘체르트슈튀크 Op.79는 이 영상물의 별미다. 브라이언 터펠과 올가 페레티아트코가 선사하는 베르디, 도니제티의 오페라 아리아가 펼쳐지다가 오펜바흐가 작곡한 '파리인의 인생' 서곡이 울려 퍼질 때 어둠에 잠긴 야외무대의 야경과 교차 편집되는 그라페넥의 자연경관이 내년의 휴가로 오스트리아 비행기 티켓을 생각해보게 한다. 터펠이 선사하는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페레티아트코와 함께 하는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는 한여름밤의 낭만을 더한다. 그리고! 마지막 곡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는 내년 휴가지로 오스트리아를 택하는 데에 결정타를 날린다!

– 영상은 총 90분 분량. 자연의 초록빛을 고스란히 담는 영상의 색채감에 PCM스테레오, 돌비 디지털 5.0, DTS 5.0으로 현장의 음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자연을 품은 영상은 시원하게 눈동자를 적시고, 그 위에 펼쳐지는 음악들은 싱싱하고 다채롭다.

EuroArts 2072988 [DVD]
EuroArts 2072984 [Blu-ray]

## 훔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아드리안 에뢰드(페터), 야니나 베흘르(게르트루드), 다이엘라 진드람, 일레아나 톤카(그레텔), 미카엘라 슈스터(마녀)/ 비너 필하모니커/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빈의 영웅, 틸레만이 승리를 거둔 동화 이야기**

그림 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열혈 바그네리안 작곡가인 엥겔베르트 훔퍼딩크가 작곡한 최고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연말연시에 가장 자주 무대에 오르는 오페라로서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전통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이 오페라는 빈 폭스오퍼에서만 상영해왔지만, 이례적으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2015년 12월 비너 슈타츠오퍼에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화제를 일으켰고 그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다. 연출은 영국 로얄 세익스피어 컴퍼니의 예술감독이었던 아드리안 노블이 맡아 고전적인 연극연출의 정수를 보여주고 오케스트라는 바그너를 능가하는 엑스타시와 아름다움이 넘실거리며 성악가들 또한 최고의 가창과 연기를 보여준다. 비너 필하모니커 최초의 헨젤과 그레텔 공연 실황으로서 음악적,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중요한 영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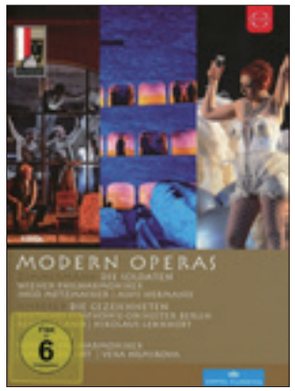
**[보조자료]**

– 그림 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열혈 바그네리안 작곡가인 엥겔베르트 훔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 1854~1921)가 작곡한 최고의 오페라이자 남매와 관련된 오페라를 오누이의 협력으로 제작한 '헨젤과 그레텔'. 1890년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교성이 적지만 바그너(그는 바그너가 파르지팔을 작곡할 당시 조수로 일을 한 적이 있다)를 향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한 젊은 작곡가인 훔퍼딩크는 그의 누이인 아델하이트 베테로부터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독일에서는 Märchen이라고 부르는)를 바탕으로 한 집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작은 인형극에 사용할 노래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델하이트는 그림 형제가 1812년에 처음으로 출판한 전통적인 판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온하고 폭력적인 잔혹동화로서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걸리적거리는 자신의 자녀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아델하이트는 루드비히 베흐슈타인이 내용을 순화시켜 새로 각색한 판본을 선택했다. 이 판본에서는 경건한 저녁 기도 장면과 천사로 변장한 모래요정(아이들이 잠이 올 때 눈이 까끌거리도록 모래를 뿌린다는 요정)과 이슬요정이 위로를 해 주는 장면이 삽입되었고, 마녀는 "비참하게 소리를 지르며 처참하게 벌을 받아" 잿더미로 불타버리는 대신 케이크로 변하게 만들었다.

– 헨젤과 그레텔이 온전한 오페라의 형식으로 연주된 것은 1893년 바이마르에서 이루어졌고 작품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초연을 이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최고 수준의 걸작"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민족주의적인 독일 청중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베리스모 오페라의 맹공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국 문화의 기원에 대한 낭만적인 환기로서 이 작품을 즉시 받아들였고, 곧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작품은 뉴욕과 런던을 포함한 무려 72개 도시에서 상연되었고 그 인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위한 가족공연으로서 소위 오페라의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전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전통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이 오페라를 빈 폭스오퍼에서만 상영해왔지만, 이례적으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2015년 12월 비너 슈타츠오퍼에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고 그 반응 또한 대단히 폭발적이었다. 연출은 영국 로얄 세익스피어 컴퍼니의 예술감독이었던 아드리안 노블이 맡아 고전적인 연극연출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정통적인 연출이 주는 힘과 동화적인 설득력은 대단히 강력하다. 특히 2막의 꿈 장면이 인상적인데, 요리사들이 출연하는 2015년 바이에른/메트 프로덕션과는 달리 풍선으로 장식된 배경으로 아이들이 동화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상 속에 빠지게끔 한다. 그리고 이 꿈 장면에서 틸레만이 이끄는 비너 필하모니커의 압도적인 연주력과 넘치는 서정미는 바그너를 능가하는 엑스타시와 천상의 아름다움을 구현케 한다. 성악가들 또한 비할 바 없는 연기와 최고 수준의 가창을 보여주며 이 오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 완벽한 오케스트라 음향과 성악진을 담은 헨젤과 그레텔은 앞으로 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맨 앞 공연시작 전 영상 인트로 부분을 트랙으로 표시하지 않은 탓에 내지에 게재된 트랙별 인덱스 번호가 하나씩 밀려있다.**
**예를 들어, 실제 플레이어에 표시되는 10번 트랙은 내지 인덱스 번호 9번 트랙에 해당한다.**




EuroArts 2072972 [4DVD Box]

## Modern Operas
## 침머만: 병사들 /슈레커: 낙인 찍힌 자들 /베르크: 룰루

### 침머만: 병사들
알프레드 무프(베제너), 라우라 아이킨(마리), 탄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샤를로테), 토마슈 코니에츠니(슈톨치우스) 외/ 비너 필하모니커/ 잉고 메츠마허(지휘)
**NTSC/ 16:9/ PCM Stereo, DD 5.0, DTS 5.0/ 자막: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122 mins**

### 슈레커: 낙인 찍힌 자들
로베르트 그루바커(알비아노 살바고), 안네 슈바네빌름스(카를로타 나르디), 미카엘 볼레(안드레아 비테로초 타마레 백작) 외/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오케스터/ 켄트 나가노(지휘)
**NTSC/ 16:9/ PCM Stereo, DD 5.1, DTS 5.1/ 자막: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145 mins**

### 베르크: 룰루 [*한글자막]
파트리샤 프티봉(룰루), 탄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게슈비츠), 파볼 브레슬릭(화가), 토마스 피프카(알바), 프란츠 그룬트헤버(쉬골히) 외/ 비너 필하모니커/ 마르크 알브레히트(지휘)
**NTSC/ 16:9/ PCM Stereo, DD 5.0, DTS 5.0/ 자막: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173 mins**

**잘츠부르크의 20세기 오페라 시리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올랐던 세 개의 20세기 오페라를 하나의 박스로 묶은 박스 세트. 잘츠부르크에서의 전통적인 레퍼토리도 훌륭하지만 이러한 20세기 오페라들도 이제는 충분히 고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무대들로서 특히 연출가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인 현대적인 무대와 리얼한 연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잉고 메츠마허가 비너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병사들'은 알비스 헤르마니스 프로덕션으로서 2012년 8월, 켄트 나가노가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터를 지휘한 '낙인 찍힌 자들'은 니콜라우스 레헨호프 프로덕션으로서 2005년 7월, 마르크 알브레히트가 비너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룰루'는 다니엘 리히터의 프로덕션으로서 2010년 8월 공연 실황이다.

**[보조자료]**

– 이 넉 장짜리 DVD 박스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개의 오페라가 2005년, 2010년, 201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포함되어 있다. 잉고 메츠마허가 비너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베른트 알로이스 침머만(Bernd Alois Zimmermann, 1918~1970)의 '병사들(DIE SOLDATEN)'은 2012년 8월 잘츠부르크 펠젠라이트슐레 실황으로서 알비스 헤르마니스(Albis Hermanis)의 경이로운 프로덕션이 눈길을 끈다.

– 쥐드도이체 자이퉁으로부터 "다른 모든 음반을 무너뜨린 올해 페스티벌의 최고작"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알프레드 무프가 베제너, 라우라 아이킨이 마리, 탄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가 샤를로테, 비너 슈타츠오퍼 전속가수로서 최근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바리톤 토마슈 코니에츠니가 슈톨치우스로 출연한다. 잉고 메츠마허는 170여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50여명에 달하는 솔리스트를 이끌고 비너 필하모니커의 가장 신랄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음향을 뽑아낸다. DIAPASON D'OR, DIAMANT d'Opéra Magazine and the Grand Prix de l'Académie Charles Cros 등으로부터 상을 받은 권위와 완성도를 자랑하는 영상물이기도 하다.

– 한편 켄트 나가노가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터를 지휘한 프란츠 슈레커(Franz Schreker, 1878~1934)의 오페라 '낙인 찍힌 자들(DIE GEZEICHNETEN)'은 2005년 7월 잘츠부르크 펠젠라이트슐레 실황으로서 니콜라우스 레헨호프(Nikolaus Lehnhoff)가 연출을 맡았다. 1차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초연된 이 오페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복잡한 무대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20세기 초반의 가장 중요한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이후 급속도로 잊혀졌지만 바로 이 200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을 통해 부활, 뉴욕 타임즈로부터 "올해의 재발견"이라고 격찬을 받은 바 있다. 로베르트 그루바커가 알비아노 살바고, 안네 슈바네빌름스가 카를로타 나르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보탄으로 일컬어지는 미카엘 볼레가 안드레아 비테로초 타마레 백작 역을 맡는다. 나가노가 이끄는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터는 넓은 무대를 완전히 치밀하게 채워나가며 슈레커의 음악어법을 드라마틱하면서도 서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 시대의 거장 레헨호프의 탐미적이면서도 임팩트 강한 무대는 음악 외적으로도 청자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끈다.

– 2005년 7월 잘츠부르크 페스트슈필하우스에서 무대에 올라간 알반 베르크(Alban Berg, 1885~1935)의 '룰루(Lulu)'는 마르크 알브레히트가 비너 필하모니커를 지휘한 프로덕션으로서 다니엘 리히터(Daniel Richter)가 연출을 맡았다. 워낙 규모가 큰 대작인 만큼 자주 연주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현대적인 섹슈얼리티와 부조리가 담겨 있는 만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지에서 자주 공연되고 있다. 역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성악가들을 요구하는 난곡인 만큼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마르크 알브레히트가 비너 피하모니커를 이끌며 베르크 음악에 담긴 실험적인 현대성과 빈 특유의 향수의 조화를 만들어 내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브람스나 말러의 음악과 딱히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엑스타시 넘치는 오케스트라 음향을 바탕으로 파트리샤 프티봉이 룰루, 탄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가 게슈비츠, 파볼 브레슬릭이 화가, 토마스 피프카가 알바, 프란츠 그룬트헤버가 쉬골히 역을 맡아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무대와 의상, 조명 등등 이보다 더 섹시하면서도 뇌쇄적인 무대는 불가능할 듯할 정도로 시각적인 즐거움 또한 대단히 크다.

## Naxos www.naxos.com

Naxos DRS 2.110416 [DVD]

###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 브루크너: 교향곡 7번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온화한 카리스마, 블롬슈테트의 슈베르트와 브루크너**

스웨덴 출신의 거장 지휘자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흔치 않은 교향곡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2007년 10월 14일 80세를 맞이하여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와 함께 덴마크 로스킬드 카테드랄에서 가진 실황으로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두 개의 7번 교향곡, 즉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과 브루크너 교향곡 7번으로 프로그램을 꾸몄다. 블롬슈테트는 과하지 않지만 대단히 정확한 제스추어와 음악 그 자체에 헌신하는 겸허한 태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농밀한 사운드와 강건하면서도 몹시 유려한 구조미, 비할 바 없는 숭고함과 처연함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해낸다. 더불어 금관 솔로나 현악군 유니즌이 등장할 때 도드라지는 높은 천장을 가진 성당의 홀톤이 아주 아름답게 마이크에 포착되었다.

**[보조자료]**

– 스웨덴 출신의 거장 지휘자인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흔치 않은 교향곡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1927년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스웨덴 부모 밑에서 태어난 블롬슈테트는 유아기에 스웨덴으로 이주했고 이후 스톡홀름 로열 칼리지와 다름슈타트에서 수학하며 음악공부를 이어나갔다. 파울 자허, 이고르 마르케비치, 장 모렐, 레너스 번스타인 등등을 사사하며 지휘자로서 실력을 쌓은 그는 1953년 쿠세비츠키 콩쿨과 1955년 잘츠부르크 지휘 컴퍼티션에서 우승을 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이후 노르웨핑 심포니(1954~1962)와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1967~1977),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1977~1982),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1975~1985), 샌 프란시스코 심포니(1985~1995), 북독일 라디오 심포니(1996~1998),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1998~2005)의 음악감독을 거친,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지휘의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현재 한국나이로 9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는 활발한 지휘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류역사상 최장수 현역 지휘자로 기록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그가 2007년 10월 14일 80세를 맞이하여 자신의 옛 전우인 덴마크 내셔널 심포니와 함께 덴마크 로스킬드 카테드랄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이 DVD에는 바로 그 날의 실황이 담겨 있다.

–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두 개의 7번 교향곡, 즉 슈베르트 교향곡 7번 '미완성'과 브루크너 교향곡 7번으로 프로그램을 꾸민 이 날의 연주회. 블롬슈테트는 과하지 않지만 대단히 정확한 제스추어와 음악 그 자체에 헌신하는 겸허한 태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농밀한 사운드와 강건하면서도 몹시 유려한 구조미, 비할 바 없는 숭고함과 처연함을 넘어서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해낸다. 금관 솔로나 현악군 유니즌이 등장할 때 도드라지는 성당의 홀톤이 아주 아름답게 마이크에 포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범상치 않은 기량와 탁월한 앙상블이 듣는 이의 영혼을 고양시킨다. 더불어 지휘자의 인터뷰 영상물이 보너스 트랙으로 첨가되어 있다.

##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10 [DVD]
OpusArte OABD7200 [Blu-ray]

###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알렉산드르 안토넨코(투리두),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록(산투차), 디미트리 플라타니아스(알피오), 마르티나 벨리(로라) 외

**[팔리아치]**

알렉산드르 안토넨코(토니오), 카르멘 지안나타시오(네다), 드미트리 플라나티아스(토니오), 디오니시오스 수르비스(실비오) 외 /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두 개의 오페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 안토니오 파파노의 첫 번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팔리아치 영상물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특히 연출가인 다미아노 미케레토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바로 두 개의 오페라를 같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치정극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극단 사람들이 팔리아치 포스터를 빵집 앞에 붙이는데 여기에 네다가 직접 전단지를 뿌리고 빵집 아들인 실비오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같은 동네에서 공연되는 팔리아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 알렉산드르 안토넨코의 드라마틱한 가창,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록의 최상의 산투차, 카르멘 지아나타시오는 요부와 같은 목소리와 연기,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독보적인 연기와 노래, 여기에 안토니오 파파노의 열정적인 지휘가 어우러진, 실로 명품 프로덕션의 진수가 바로 이 영상물에 담겨있다.

**[보조자료]**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드라마 고유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의 젊은 연출가인 다미아노 미케레토(Damiano Michieletto, b.1975)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를 위해 제작한 새로운 프로덕션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 파파노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지금껏 이 두 개의 베리스모 오페라를 음반이나 영상으로 만들지 않았던 탓에 이번 HD화질의 블루레이 발매분이 더욱 반갑고 의미있게 다가오기도 하다. 미케레토의 연출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프로덕션보다 강도 높은 집중력을 내뿜는데, 이러한 요소는 가장 먼저 무대의 디자인에서 기인한다. 무대 중앙에 단 하나의 회전무대를 설치, 여기에 건물의 안과 밖을 교차로 회전시킨다. 그 결과 장면에 따른 실내의 사건과 실외의 사건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화면 전체로 구도를 확장시킨 작년 잘츠부르크 실황(카우프만 주연)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서 관객의 초점을 한 군데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조명, 뒷배경을 완전히 검게 하고 땅과 하늘의 경계에 흰색 띠를 둘러 무대와 배경 사이에 극단적인 흑백의 콘트라스트를 준다. 여기에 적절한 캐릭터를 향한 스포트라이트와 색조조명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상황의 전환을 암시하며 수위가 높은 몰입감을 자아낸다.

– 그리고 가장 뛰어난 미케레토의 아이디어로서, 바로 두 개의 오페라를 같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치정극으로 묶어놓았다는 점. 우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극단 사람들이 팔리아치 포스터를 빵집 앞에 붙이는데 여기에 네다가 직접 전단지를 뿌린다. 그리고 결국 빵집 아들인 실비오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간주곡 장면에 등장, 이후에 펼쳐질 팔리아치의 비극을 암시한다. 우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투리두의 엄마인 루치아

가 죽은 아들의 시체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너무나 빼어난 연기로 인해 첫 장면부터 시청자들은 비극의 카타르시스를 서곡에서 이미 느낄 수도 있을지 싶다. 그리고 부활절 행진에 등장하는 마리아상은 연기자가 직접 소화하며 산투차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이 처절한 투리두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팔리아치. 전형적인 시골처녀인 산투차 역의 베스트브록과는 전혀 달리 네다 역을 맡은 카르멘 지안나타시오는 상당히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캐릭터. 그녀는 극장으로 찾아온 빵집 아들 실비오와 사랑을 나누다가 카니오에게 들킨 뒤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오른다. 처음에는 손님들을 모아놓은 무대이지만 건물이 회전하며 본격적인 심리극으로 돌진한다. 카니오와 토니오, 네다가 연극을 벌이지만 이는 관객이 보는 무대가 아니라 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 일종의 상징. 무대가 한바퀴 돌면 대리연기자들이 계속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내 카니오가 등장하며 가수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한 번 이 영상물을 보면 두 개의 오페라를 연속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극적인 매력이 담뿍 담겨 있다.

– 알렉산드르 안토넨코의 드라마틱 가창은 언제 들어도 최고 수준. 두 오페라에서 모두 출중한 고음과 감정표현을 보여주는 한편 음악적, 극적 중심을 확고하게 잡으며 베리스모의 참된 리얼리티를 자아낸다. 에바-마리아 베스트브록은 어느 하나 첨언할 것이 없는 최상의 산투차를, 카르멘 지아나타시오는 요부와 같은 목소리와 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낸다. 다른 배역들의 역할도 상당히 빼어나고 특히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기와 노래는 독보적일 정도로 리얼하다. 파파노의 지휘는 그 어떤 지휘자들보다 더욱 처연하되 강력하고 청명하되 자극적이며 벨칸토적이되 실랄하다. 파파노-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첫 번째 카발레리라 루스티카나/팔리아치 첫 번째 영상물에 어울리는 극적, 음악적, 시각적 완성도를 갖고 있는 훌륭한 고전주의적 프로덕션으로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하다.

OpusArte OA1219 [DVD]
OpusArte OABD7206 [Blu-ray]

## 브리튼: 루크레티아의 능욕

크리스틴 라이스(루크레티아), 앨런 클리톤(남자 목소리), 케이트 로열(여자 목소리), 둔칸 록(타르퀴니우스) 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오 후세인(지휘)

**브리튼 실내극의 21세기적인 재탄생**

브리튼의 첫 실내 오페라인 루크레티아의 능욕 글라인드본 프리미어 무대가 영상물로 발매되었다. 전작인 피터 그라임스와는 대조적인 첼버 오케스트라 규모의 혁신적인 사운드의 실내 오페라. 로마 밖에서 3명의 장군이 여자와 여자의 명예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다가 타르퀴니우스는 로마 장군 콜라티누스의 정숙한 아내 루크레티아에게 강한 욕망을 느낀 뒤 로마의 루크레티아 집에 찾아가 하룻밤 묵을 것을 요청하고 한밤중에 그녀를 강간한다. 다음 날 루크레티아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출연자들의 강렬한 내면연기와 극한의 아름다움을 향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이지적이고 리얼하며 충격적인 극을 만들어낸다. 피오나 쇼의 연출은 이 난해한 오페라에 탐미적이면서도 실랄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작품을 우리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내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16109 [DVD]
RCO 16108 [Blu-ray]

##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실황

다니엘레 가티(지휘),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새 바람을 일으킬 다니엘레 가티와 콘세르트헤바우의 진한 입맞춤**

2016/17시즌부터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에 취임한 다니엘레 가티의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리스트의 교향시 '오르페우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연주를 담은 영상물이다. 1080p24의 해상도의 영상과 사운드는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부터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폭풍 같은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가티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하이팅크, 샤이, 얀손스의 전통을 이으며, 동시에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이다.

**[보조자료]**

– 네덜란드의 명문인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을 이끌던 마리슨 얀손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이탈리아 출신의 다니엘레 가티다. 2016/17시즌부터 취임한 가티는 1994~1997년 영국 로열 오페라 수석 객원지휘자에 이어 1996~2009년 로열 필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런던'을 발판삼아 성장했고,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로 '파리'를 물들였고, 이제 '암스테르담'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3월 31일과 4월 1 · 2일 실황이다.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1845년 드레스덴 버전), 리스트의 교향시 '오르페우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연주한다. 1080p24의 해상도의 화질과 LPCM 2.0과 DTS-HD MA 5.0을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옵션의 이 영상물은 가티와 단원들의 땀방울은 물론 이 오케스트라의 상주홀로 유명한 콘세르트헤바우의 고풍스러운 문양과 현장에서 듣는 듯한 생생한 울림을 고스란히 재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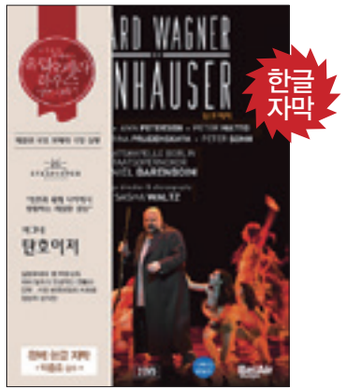
– 이 영상물은 콘세르트헤바우를 이끌었던 하이팅크, 리카르도 샤이, 마리슨 얀손스가 남긴 음악적 전통을 이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음악적 이정표 역할을 할 명반임을 입증한다. 가티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해석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길어 올린다. 폭풍 같이 흐르는 템포에서도 두 발을 단상에 딱 붙이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지휘하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 3곡 중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다. 1악장 '꿈, 정열', 2악장 '무도회', 3악장 '들 풍경', 4악장 '단두대로의 행진', 5악장 '마녀들의 밤의 향연과 꿈', 각 악장마다 부제가 붙은 이 곡을 가티는 빈틈없는 구성과 밀도 있는 사운드로 문학적인 면과 음악적인 면 모두 성공적으로 부각시킨다.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부클릿에는 '환상 교향곡'에 대한 가티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자체 레이블(RCO)에서 출간하는 영상물의 미장센 연출은 압권이다. 이를 선두 지휘하는 딕 카위스 감독의 솜씨는 무대와 관객을 구석구석 훑으며 보는 재미를 더한다.

## Aulos Media

www.aulosmedia.com




ADVD-069 [2DVDs]

Aulos media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방황하는 처절한 갈등"

### [31] 바그너: 탄호이저

-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실황
- 실험무대의 명 무용감독 사샤 발츠의 인상적인 연출과 안무
- 거장 바렌보임의 지휘와 정상의 성악진

**[줄거리]**

중세 독일의 기사 탄호이저는 베누스의 육욕적인 사랑에 매혹되어 그녀와 쾌락의 나날을 보내고 돌아온다. 고향에는 연인 엘리자베트가 변함없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들의 노래경연대회에서 탄호이저는 그만 베누스와의 경험을 실토해버린다. 그는 비난을 받고 영주는 징계를 내린다. 로마까지 순례의 길을 가서 교황의 용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누스를 경험한 자는 교황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에 절망하여 다시 돌아온 탄호이저는 자신을 맞이해줄 자는 베누스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한다. 하지만 엘리자베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 그녀의 희생 때문에 탄호이저는 구원을 얻는다.

ADVD-070 [DVD]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복수가 공존하는 강력한 걸작"

### [32] R.슈트라우스: 엘렉트라

-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 실황
- 은퇴한 천재지휘자 살로넨의 마지막 실황
- 헤를리치우스, 마이머, 피에촌카, 최고 트리오의 열창

**[줄거리]**

고대 그리스 비극은 오페라의 중요한 소재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스파르타의 왕 아가멤논은 연인과 불륜을 저지른 왕비 클리템네스트라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공주 엘렉트라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머니와 그 정부를 살해하려 하지만, 처녀의 몸이라 힘이 없다. 그녀는 미친 여자로 가장하여 목숨을 부지하면서, 외국으로 간 남동생 오레스트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린다. 결국 오레스트는 극적으로 귀환하는데... 어머니와 두 딸이 보여주는 세 모녀의 애증 관계는 여성 심리의 최고봉이며, 오레스트의 손으로 저질러지는 피날레의 복수장면은 R. 슈트라우스 관현악의 백미이다.

ADVD-071 [DVD]

"러시아도, 러시아 오페라도 이끌어가는 것은 민중"

### [33] 무소륵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 뮌헨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실황
- 섹슈얼리티와 폭력으로 화제를 일으켜온 비에이토의 새로운 무대
- 나가노의 스케일 넘치는 지휘

**[줄거리]**

1600년경 러시아. 황제가 서거하여 황가의 혈통은 끊겨버렸다. 이에 백성들은 섭정이었던 보리스 고두노프가 황제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외친다. 고두노프는 못이기는 채 황제로 즉위한다. 그러나 실은 고두노프가 왕위계승자였던 드미트리를 암살한 주범이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스스로를 드미트리라고 칭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모스크바를 향하여 쳐들어온다. 하지만 그 역시 우연히 고두노프의 비밀을 알게 된 젊은 수도승이었다. 드미트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고두노프는 두려움으로 떤다. 가짜 황제와 가짜 계승자의 권력을 향한 치열한 대결... 지도층과 인민의 탐욕과 갈등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장 러시아적인 오페라다.

ADVD-072 [2DVDs]

"실연의 복수를 위해 아이를 죽인 어머니의 비극"

### [34] 케루비니: 메데아

- 브뤼셀 라 모네 극장 실황
- 로시니 이전 시대의 최고 거장의 걸작
- 명장 바를리코프스키의 연출과 나디아 미카엘의 명연

**[줄거리]**

코린트의 공주 글라우체는 이아손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여자 메데아가 나타난다. 메데아는 이미 이아손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었으며, 마법으로 이아손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돕기도 하였었다. 그런데도 버림받은 메데아는 이아손에게 눈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애원한다. 하지만 이아손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메데아는 글라우체에게 결혼 선물로 예복을 보낸다. 글라우체는 메데아가 이아손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그 옷을 입는다. 하지만 옷으로부터 글라우체의 온몸에 독이 퍼지고 불에 타서 참혹하게 죽는다. 메데아의 분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두 아이마저 죽인다.

ADVD–073 [DVD]

"사랑을 뺏기 위한 음모, 사랑을 지키기 위한 광기"

## [35] 림스키코르사코프: 차르의 신부

– 베를린 국립 오페라극장 실황
– 러시아적 서정미의 정수를 담은 숨은 걸작
– 바렌보임의 지휘와 귀재 체르니아코프의 세련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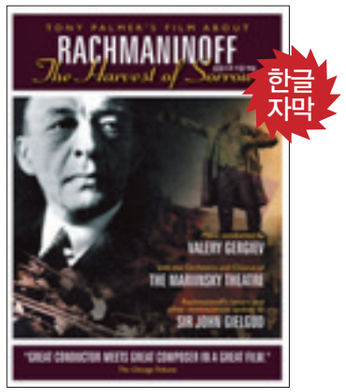
**[줄거리]**

젊은 장교 그리고리는 상인의 딸 마르파의 미모에 반하지만, 그녀는 이미 귀족 리코프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래서 그리고리는 의사에게 사랑의 묘약을 부탁한다. 그들의 음모를 그리고리에게 버림받은 여자 류바샤가 엿듣는다. 류바샤는 실연의 복수로서 마르파의 미모를 없애는 약을 주문한다. 이렇게 마르파는 두 남자의 구혼을 받지만, 그녀는 예상치 않게 차르(황제)의 신부로 결정된다. 차르와의 원하지 않는 결혼식 도중에 약을 먹은 마르파는 광증의 상태가 된다. 그런 그녀를 보고 앞의 복잡한 사랑의 그물에 얽힌 인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자백한다. 그러나 마르파는 그런 고백들도 알아듣지 못한 채로 그만 죽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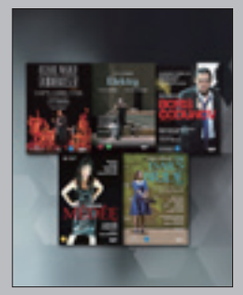
Coming Soon!

## +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라흐마니노프 DVD

ADVD–074 [2DVDs]
**라흐마니노프:**
오페라 '트로이카'




ADVD–075 [DVD]
**라흐마니노프:**
다큐 '슬픔으로 이룬 예술'



**표지사진**
한글자막과 함께하는
유럽걸작오페라 7차분

**〈아울로스뉴스〉 2016년 10월호**
통권 제 68호 발행 2016년 10월 15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